

홍성문차

계 간

겨울

홍성문화원

제23권 4호 통권 157호

1989년 11월 23일 충청남도등록 충남바01100호

·발행인 : 이하영

·편집인 : 정재범

·발행일 : 2004년 12월 (겨울호)

·발행처 : 홍성문화원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12-13 ☎ 041)632-3613)

·인쇄처 : 조양인쇄사 (☎ 041)632-2363)



▲ 홍주아문 (洪州衙門)

2004 문화원 행사

- 2004 문화원 행사/편집부/2

뇌졸중(중풍) 예방과 응급처치를 위한 활기공

- 뇌졸중(중풍)/柚村 김영성/25

가족과 함께 떠나는 시간여행⑩

- 선사인의 숨결, 백제로 이어진 곳/조원찬/15

홍주마당

- <한시>/又松 이해헌/37

우체국 가는 길



이봉연 시인·한국미술협회 홍성지부 회원

보고싶다
엽서 한 장을 들고 우체국으로 난
오솔길로 걸어간다
낙엽들이 내 발을 잡고
그녀처럼 떼를 쓴다
나도 데려다 줘요
그 만한 사연은 내게도 있어요
우체통에 넣어줘요
누구에게라도 붉게 타고 싶어요
저녁노을 까치들처럼 요란한 사연에
발걸음이 잡혀 주저 않는다
늦게 피어난 들국화는 아직
낙엽들의 사연을 알아듣지 못하고
달개가 처진 별 몇 마리가
낙엽들의 사연을 녹음하기에
피로한 기색이다
가장 붉은 사연의 낙엽 몇장을
엽서와 함께 들고
우체국으로 걸어간다.



홍성문차

2004/겨울

계간/팔지 않는 책

- 2 2004 문화원 행사 | 편집부
- 6 우리의 다짐 | 어떻게 살건가?
- 7 홍주의 얼을 찾아서 | 홍주목사 홍가신(洪可臣) | 故배동순
- 8 문화원 소식 | 문화행사 | 편집부
- 12 홍성의 마을제 【洞祭】 ㉓ | 장승제 | 김정현
- 은하면 화봉리 상가 마을 -
- 14 건강 | 분노와 용서 | 김용신
- 15 가족과 함께 떠나는 시간여행 ⑩ | 조원찬
- 선사인의 숨결, 백제로 이어진 곳 -
- 20 담안에서 띄우는 편지 | 가을 빈 밭에 서서 | 고광철
- 22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한지 | 한지의 역사 ⑤ | 편집부
- 25 뇌졸중(중풍) 예방과 응급처치를 위한 활기공
| 뇌졸중(중풍) | 柚村 김영성
- 27 모임 | 조양(朝陽) 산우회 | 정태봉
- 33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환경 상식 백가지 ⑦ | 편집부
- 패스트푸드점이 쏟아내는 일회용품 -
- 36 홍주마당
어머니 | 유재민
한시 | 又松 이해헌
그리운 어머니 | 김정명
제6회 학교4-H회 국화전시 개최 | 편집부
나는 아직도... | 김영기
오서산 역사물축제 | 이환능
아름답고 풍성한 홍주의 학예회 | 우선희
- 45 마음의 양식 | 신간안내 | 편집부
- 46 알아보는 생활상식 | 생활의 지혜 | 편집부
- 47 회원모집 안내 | 편집부
- 48 편집후기

홍성문화원 발행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12-13

발행인 이하영

편집인 정재범

2004년 12월

통권 157호

1989년 11월 23일 등록

전화)041-632-3613

041-634-9659

인쇄처 · 조양인쇄사

편집국장	부원장	원장	결재
편집부	편집부		
전수일자	2005. 1. 6		
전수번호			

2004년 신년교례회



- 일 시 : 2004. 1. 3(토) 오전 11시
- 주 관 : 홍성문화원
- 장 소 : 홍성군청 대강당
홍성의 화합과 문화발전을 위한 군내
각급 기관·단체장 상호인사의 자리

◀ 한자리에 모인 각급 기관·단체장들

제43차 정기총회



- 일 시 : 2004. 1. 30(금) 오후 2시
- 주 관 : 홍성문화원
- 장 소 : 홍성문화원 문화사랑방
2004년 문화원 사업에 관해 대의원들
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

◀ 대의원들 회의 모습

제3회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



- 일 시 : 2004. 2. 4(금) 오후 2시
- 주 관 : 홍성문화원
- 장 소 : 홍성군청 앞, 홍주의사총 옆 논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잊혀져 가는 우
리 고유민속을 알리기 위한 민속행사

◀ 지신밟기 모습

전통관례 및 계례 재현



- 일 시 : 2004. 5. 17(월) 오전 11시
- 주 관 : 홍성문화원
- 장 소 : 혜전대 야외무대
성인된 자로 하여금 올바르게 지키고, 행해야 됨을 가르치는 자리

◀ 성년식을 치루고 있는 성년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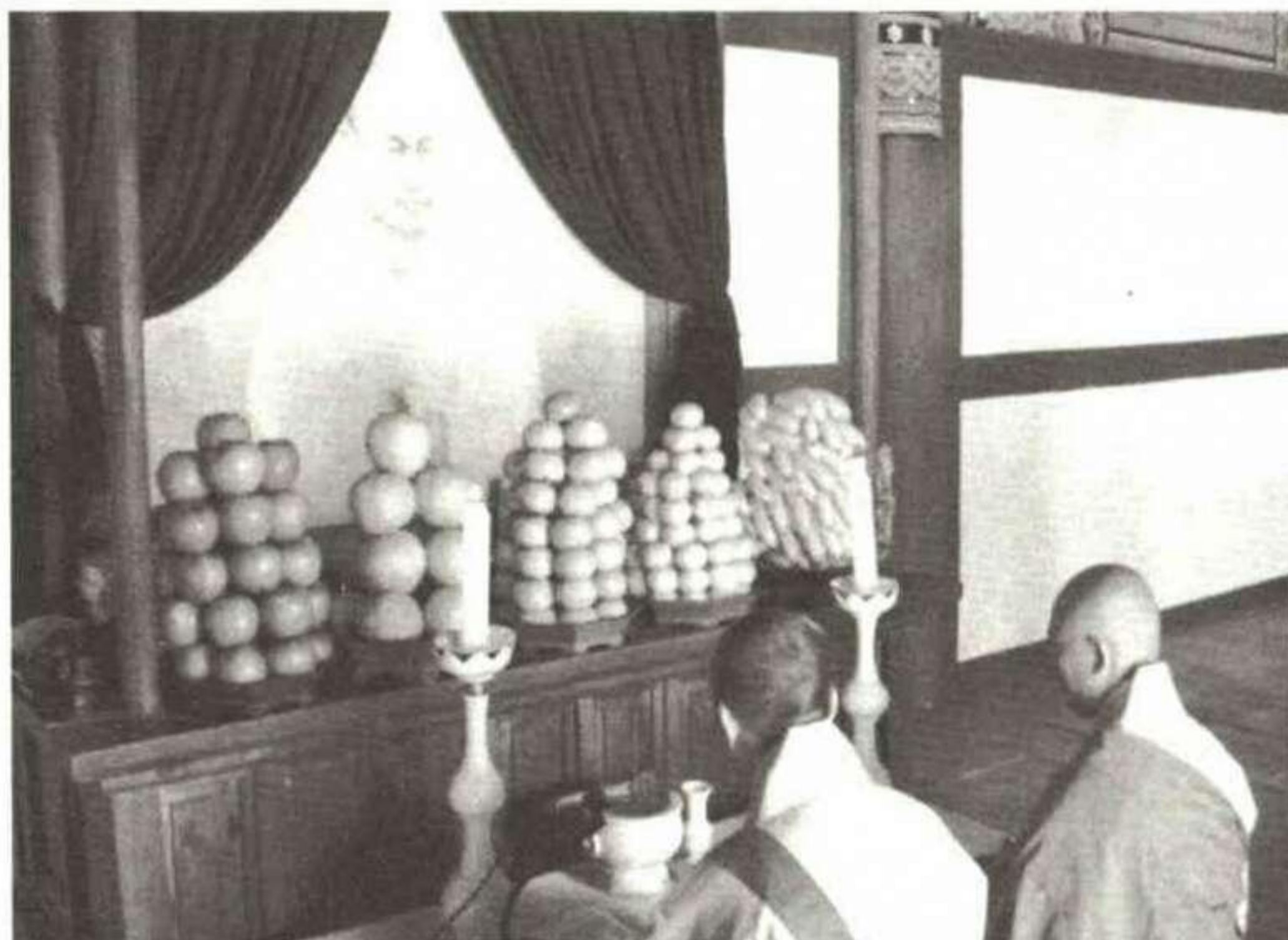
가족과 함께 하는 거리영화제



- 일 시 : 2004. 6. 5(토) 오후 8시
- 주 관 : 홍성문화원
- 장 소 : 푸른쉼터
야외에 대형스크린을 설치, 가족과 함께 영화를 감상하는 자리

◀ 영화상영 전 풍물공연 모습

제10회 만해제



- 일 시 : 2004. 10. 9(토)~10(일) 오전10시
- 주 최 : 만해제추진위원회
- 주 관 : 홍성문화원
- 장 소 : 만해생가지, 홍성군청, 푸른쉼터 등
만해 한용운선사 추모 및 문학과 음악이 있는 추모공연의 자리

◀ 독경을 하고 있는 스님들의 모습

제4회 지역문화축제 '한우리'



- 일 시 : 2004. 10. 9(토) 오후 3시
- 주 관 : 흥성문화원
- 장 소 : 푸른섬터

각종 문화예술단체와 개인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마당' 잔치의 자리

◀댄스스포츠를 관람하고 있는 주민들

2004 평생교육 「내고장 역사교실」



- 일 시 : 2004. 3. 30(화), 4. 14(수)
- 주 관 : 흥성문화원
- 후 원 : 충남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 대 상 : 금당초등학교, 광남초등학교
문화·유적지를 탐방하며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자리

◀문화·유적지 앞에서

2004년 가족과 함께 「찾아가는 문화원」



- 일 시 : 2004. 7. 24(토), 8. 8(금), 19(목)
- 주 관 : 흥성문화원
- 장 소 : 국내 문화·유적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 테마별 문화탐방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자리

◀찾아가는 문화원에 참가한 주민들

문화원 문화학교 강좌 《노래교실》



■일 시 : 2004. 1. ~ 12.

■장 소 : 문화사랑방

삶에 활력을 주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노래교실은 수강생들의 문화생활 향상의 자리

◀ 노래를 부르는 수강생들 모습

문화원 문화학교 강좌 《도예교실》



■일 시 : 2004. 4. ~ 11.

■장 소 : 개인 공방

일상에 활용될 수 있는 생활도자기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자리

◀ 도자기를 빚고 있는 수강생들

문화원 문화학교 강좌 《코바늘·뜨개질교실》



■일 시 : 2004. 9. ~ 11.

■장 소 : 1층 도서실

코바늘과 뜨개질을 배워 자신이 직접 옷을 뜨고, 선물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자리

◀ 수강생들이 즐겁게 옷을 뜨는 모습

어떻게 살건가?

요새 사람들 산다는 것이 즐거움 속에서 내일을 희망으로 기다리며 살기가 벅찬 것 같다. 서민들의 주머니가 점점 줄어들어든다는 말들이 무성하다.

전기, 버스, 택시, 도시가스, 상하수도, 우편요금에서 쓰레기봉투 값, KBS수신료, 고교수업료까지 서민성 공공요금이 일제히 오르고 있다니 걱정이다. 모 방송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3명중 2명은 지금의 경제를 IMF 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상태라고 한다. 서민들이 생각할 때 정부나 국회가 서민들의 눈물을 이해하는 건지, 하기야 재정이 부족하면 세금 올리고, 인상요인이 생겼다 하면 공공요금이나 올리면 만사해결 되는 건지, 도대체 서민들은 어떻게 살건가?

넓게 지구촌의 금년도 상황을 살펴보자. 서남아시아 각국이 10년 만에 최대 홍수피해를 겪고 곳곳에서 산림파괴와 지구온난화로 새로운 형태의 가뭄과 홍수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구의 고산지대와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내리는 양이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하며, 바다에 접해 있는 섬들이 점점 물속에 가라앉고 있다고 한다. 지난 7월 케냐의 대통령은 극한의 가뭄으로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했고, 인도는 10년만의 대홍수로 엄청난 희생에 몸부림 쳤고,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30%가 물에 잠겼다고 한다. 그리고 미국, 유럽, 남미는 이상기온으로 고난을 겪었다고 한다. 폭염으로 수만 명이 사망한 유럽은 지역별로 온도차가 극심하다고 한다. 이처럼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은 농작물의 작황이 줄고 재고가 급감함으로써 곡물가격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피해 입은 국가에서는 전 세계인들에 호소하고 있다. 인위적인 대기오염 등을 막을 수 있는 근본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다. 문명이 발달될수록 대기오염 또한 엄청나게 변화에 가속도가 생기는 것이다.

알기 쉽게 우리고장 집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량을 생각해 보아도 느낄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회생활의 발달로 우리나라도 인간 수명이 길어짐으로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국 군의 세곳중 한곳이 65세 이상 노인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를 이루고 있다. 2026년에는 나라 전체가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라 한다. UN에서는 전체인구의 65세 이상이 7%에 이르면 고령화 사회가 되고 전체의 20%이상이면 초고령화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올해는 유년인구 100명당 노인인구 43명이지만, 2020년에 가면 유년인구 100명당 노인이 109명에 이른다고 한다. 15세~64세 인구들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을 의미하는 노년 부양비는 올해 12.2%, 2020년에는 21.3%, 2030년에는 35.7%로 높아 질 것이라 한다. 올해는 생산가능 인구 8.2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보나 2020년에는 4.7명이 1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된다.

우리민족은 반만년 역사에서 유난히 한(恨)이 많았던 민족이다. 외족의 침략에 맺힌 한, 못살고 가난했던 한, 출세하지 못한 한, 따라서 개인별로 기본 욕망에 접근하지 못했던 한으로 응어리진 삶이 대부분이다. 욕심이 강하면 한도 강하게 나타난다. 한을 한으로 풀다 보면 험악한 사회악으로 번지기 쉽다. 아니면 자기 삶을 체념하는 자살로 마감 짓는 경우도 많다. 집단 자살, 동반자살 등등 얼마나 비참한 현실인가.

그러나 현명한 사람들은 한을 희망으로 역전시킨 사례도 많은 것이다. 오히려 한은 희망으로의 굳센 발판으로 여기며, 인내하고 성실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인생의 보람인 것이다. 지금부터 나의 삶을 가다듬어 운명 앞에서 어떻게 살건가를 깊이 생각해 보자.

흥주목사 홍가신(洪可臣)



故배동순 향토사학자

선조 29년 8월 25일(경신)

비망기(備忘記)로 우부승지 유희서(柳熙緒)에게 전교하기를,

“흥주목사 홍가신(洪可臣)은 전에 성(城)을 지키는 공으로 당상(堂上)에 승진했는데, 그 뒤 한현(韓絢)을 -역적의 괴수이다.- 잡았으니 마땅히 또 가자(加資)해야 할 듯하고, 나머지 역적을 잡은 사람들도 논상해야 한다. 이 일을 위관(委官)들에게 -이산해(李山海)·유성룡(柳成龍)·윤두수(尹斗壽)·김응남(金應南)·정탁(鄭琢)이다.- 말하여 회계(回啓)하게 하라.”

하였다. 의금부가 회계하기를,

“전교에 ‘흥주목사 홍가신은 앞서 성을 지키는 공으로 당상으로 승진했지만, 그 뒤에 한현을 잡았으니 또 가자해야 할 듯하다. 그리고 여러 역적을 잡은 사람 및 이시발(李時發)의 첫 번째 서계(書啓)를 가지고 온 공주(公州) 정병(正兵) 박군세(朴君世)와 한현·강봉(姜琫) 등의 서간(書簡)을 찾아낸 사람도 아울러 속히 논상해야 한다. 그리고 역적들의 공초 내에 「도천사(道泉寺)의 -부여(扶餘)에 있는 절 이름이다.- 중설미(雪眉)가 고변(告變)하려고 하다가 역적들에게 살해되었는데, 역적들이 이 때문에 누설될까 두려워하여 약속한 날을 기다리지 않고 기일에 앞서 발동했기 때문에 음흉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 빨리 패하게 되었다.」 고 했다.

설미에게 포상해야 할 듯하니 만일 그의 부모가 있다면 그의 가정을 돌보아 주어야 할 것이니, 모두를 참작해 보아 회계하라. 이 밖에 포상해야 할 사람들을 위에서 다 알기 어려우니, 취품(取稟)하여 논상하라.’고 하셨습니다.

홍가신에게 또 가자하는 일은 성상의 분부가 지당하십니다. 당초 이시발의 서장(書狀)을 가지고 온 공주 정병 박군세와 한현의 서간을 찾아낸 주부(主簿) 임사원(林士元)은 하교하신대로 해사(該司)로 하여금 짐작해서 관직을 제수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고, 강봉의 서간을 찾아낸 사람은 장계 내용에 나타나 있지 않으니 병사(兵使) 이시언(李時言)에게 그의 성명을 하문하여 시상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이몽학(李夢鶴)이 반역을 모의할 때 도천사의 중들이 따르지 않는 자가 없었는데도, 설미가 유독 역적에게 붙지 않고서 고변하려고 하다가 마침내 살해당하게 되었고, 역적들이 빨리 실패하게 된 것도 또한 누설될까 두려워하여 감새를 알고서 앞질러 발동한 때문이었으니, 설미의 죽음은 진실로 가상하게 여겨야 할 일로서 우선적으로 포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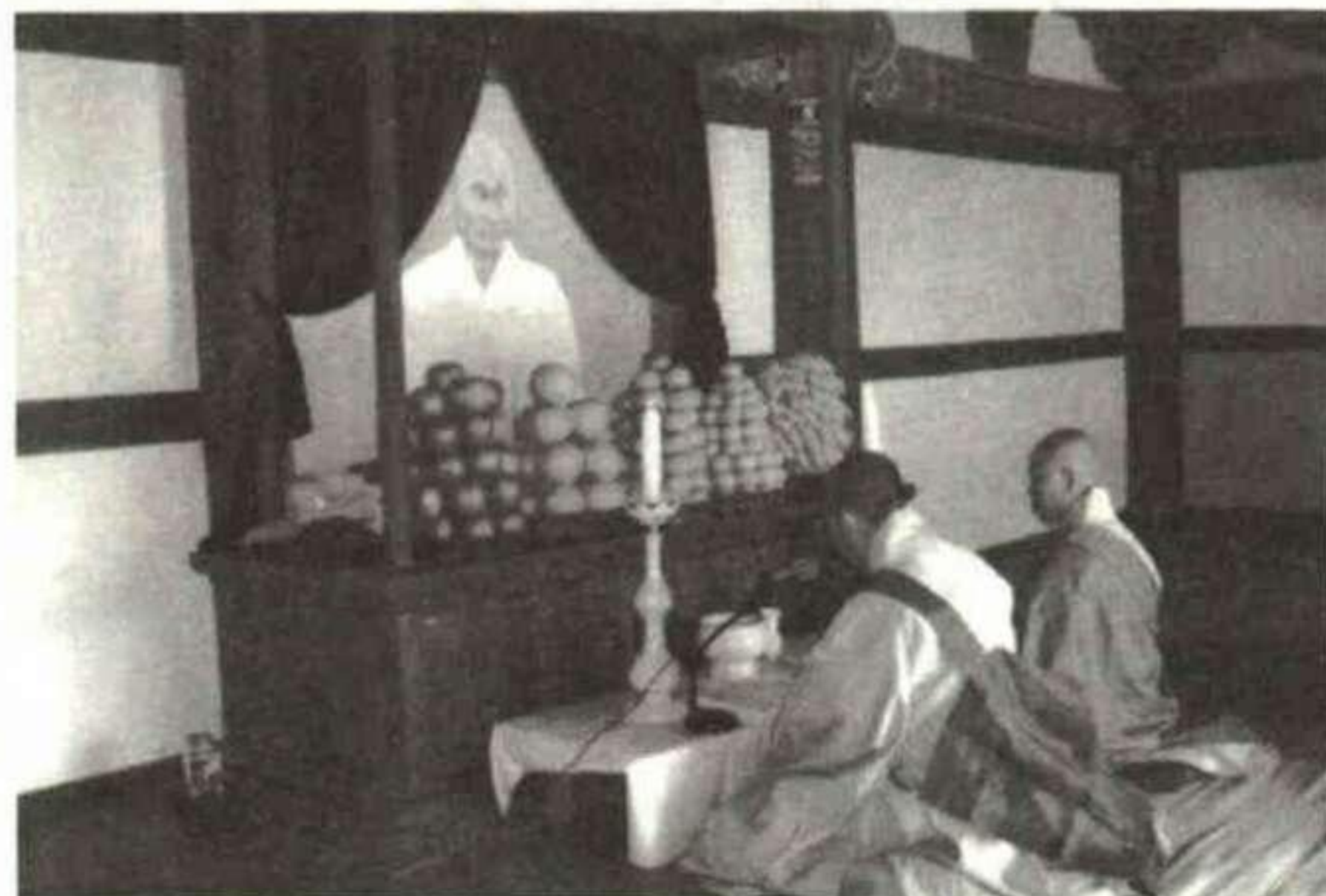
전일에 추국청(推鞠廳)에서도 이를 의논하기만 하고 미처 취품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성상의 분부를 받들고 보니 못내 감격스럽습니다. 그의 부모의 생존 여부를 또한 본도(本道)에 물어보고 하나하나 상계서 분부하신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문화행사

| 편집부 |



만해제추진위원장 기념사 모습



추모다례 '독경' 모습



퍼포먼스를 구경하는 가족

【 제10회 만해제 】

♣ 첫째 날 《2004. 10. 9(토)》

2일간 일정으로 계획된 제10회 만해제가 9일(토) 오전 11시에 기념식 및 추모다례의 시작과 함께 만해생가지에서 시작되었다.

기념식이 있기전 만해 한용운선사에 대해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그분이 살아오신 일생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전보삼 교수께서 말씀해 주신 만해 바로 알기 강연이 있었다. 박수로 강연이 끝나고 이어서 진행을 맡으신 강민 스님께서 개회선언을 하였다. 곧바로 독경, 헌다, 헌화분향, 군수인사, 내빈인사가 이어졌다. 추모다례가 모두 끝나고 사당 앞 공터에 마련된 「만해 이야기가 있는 공양」 중식을 먹으면서 내빈들과 주민들이 극단 솔마루의 <아름다운 시절> 퍼포먼스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귀여운 여자아이가 옛날 사진첩을 보면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미있게 설명하였다. 퍼포먼스를 바라보며 한 컷의 사진을 선택하면 색색으로 분장한 연기자가 포즈를 취하고 여자아이가 설명하는 퍼포먼스로 사람들은 마냥 신기한 듯 눈을 떼지 못했다.

또한 생가지 공터에 만해 선사의 유품사진과 그분의 자라온 일대기를 그린 만화를 같이 전시해 그분에 대해 어렵지 않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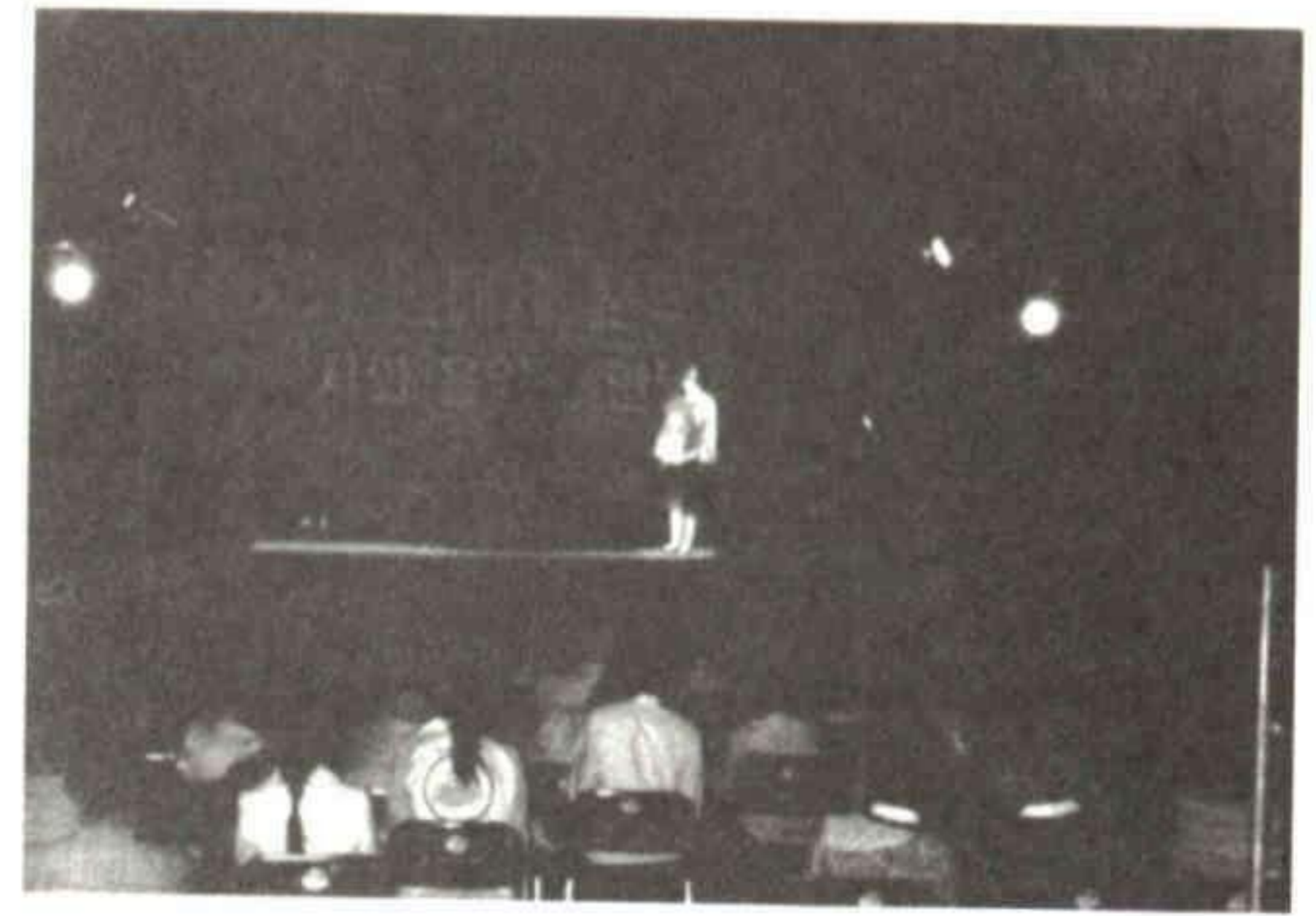
만해제 일환 행사로 오전9시에 홍주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홍성군내포제시조보존통합시우회가 주관하는 제18회 전국남·녀내포제시조경창대회가 열렸고, 오전10시에는 홍성청년회의소가 주관한 만해백일장·사생·회화대회가 푸른섬터에

서, 문학에 대해 배우는 만해청소년시인학교가 오후 2시 홍성군청에서 한국문인협회 홍성지부의 주관으로 하루일정을 시작하였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타악 뮤지컬 공연



퍼포먼스 모습

제4회 지역문화축제 '한우리'도 만해제 일환으로 작품전시 및 공연, 종이접기체험, 도예체험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자리를 가졌다.

첫날의 피날레를 장식할 문학의 밤(1부)이 6시 30분 군청 후정에서 타악뮤지컬, 뮤지컬 노래, 태평무, 시낭송, 퍼포먼스 등 다양한 공연으로 진행되었다. 평소 들을 수 없는 뮤지컬 노래와 타악뮤지컬 등 준비된 프로그램들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기에 충분했고, 현란한 손동작에 깊게 울리는 북소리도 마음을 들뜨게 만들었다.



만해청소년시인학교 시상 모습

♣ 둘째 날 《2004. 10. 9(토)》

제18회 전국남·녀내포제시조경창대회와 만해청소년시인학교의 일정이 진행되었고, 홍주라이온스클럽에서 주관하는 걷기대회가 홍주의사총에서 오후 1시에 시작됐다. 걷기대회 출발 전 연예인 팬싸인회와 우유마시기 시합이 있었다.

출발하기 전 티셔츠와 경품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추첨권을 받은 후 남산공원에 있는 본 행사장 푸른쉼터로 가족과 친구, 연인 등으로 구성된 사람들의 긴 행렬이 시작되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서로가 느긋하게 걸으면서 즐거운 웃음을 짓고 있었다.

푸른쉼터에 걷기대회 참가자들이 모두 도착하고 경품추첨을 시작했다. 다양한 경품으로 아이들과 어른들도 기뻐하니 건강도 챙기고, 실속도 챙길 수 있는 행사였다.

경품추첨을 끝으로 돌아가는 참가자들은 몇 없었다. 다음 공연인 만해추모공연(2부, 3부)을 기다리고 있다가 홍성군 생활개선회가 마련한 '만해 이야기가 있는 만찬' 국수를 먹으면서 사람들은 서로 정을 나누었다.



걷기대회 참가자들의 모습

기다리던 만해추모공연(2부)이 시작되고 국수를 먹던 사람들의 눈이 한곳으로 모아졌다. 2부는 가수 하남석의 노래를 시작으로 전통춤, 타악, 소리, 마임, 가요공연 등으로 진행됐고, 3부는 퍼포먼스, 가요, 들소리, 만해추모 영화상영으로 꾸며졌다.



도량광대 '소리' 공연중



영화상영 모습

은 신기한 듯 집중해서 공연을 관람했다.

만해추모공연이 모두 끝나고 영화상영시간이 되었다. 무대에 영화스크린을 설치한 후 영화 『어린신부』를 상영하기 시작했다. 오로지 영화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공원 내 조명을 모두 끄자 웅성거리던 소리도 사라지고 조용한 정적 속에 영화 속 세상의 소리만이 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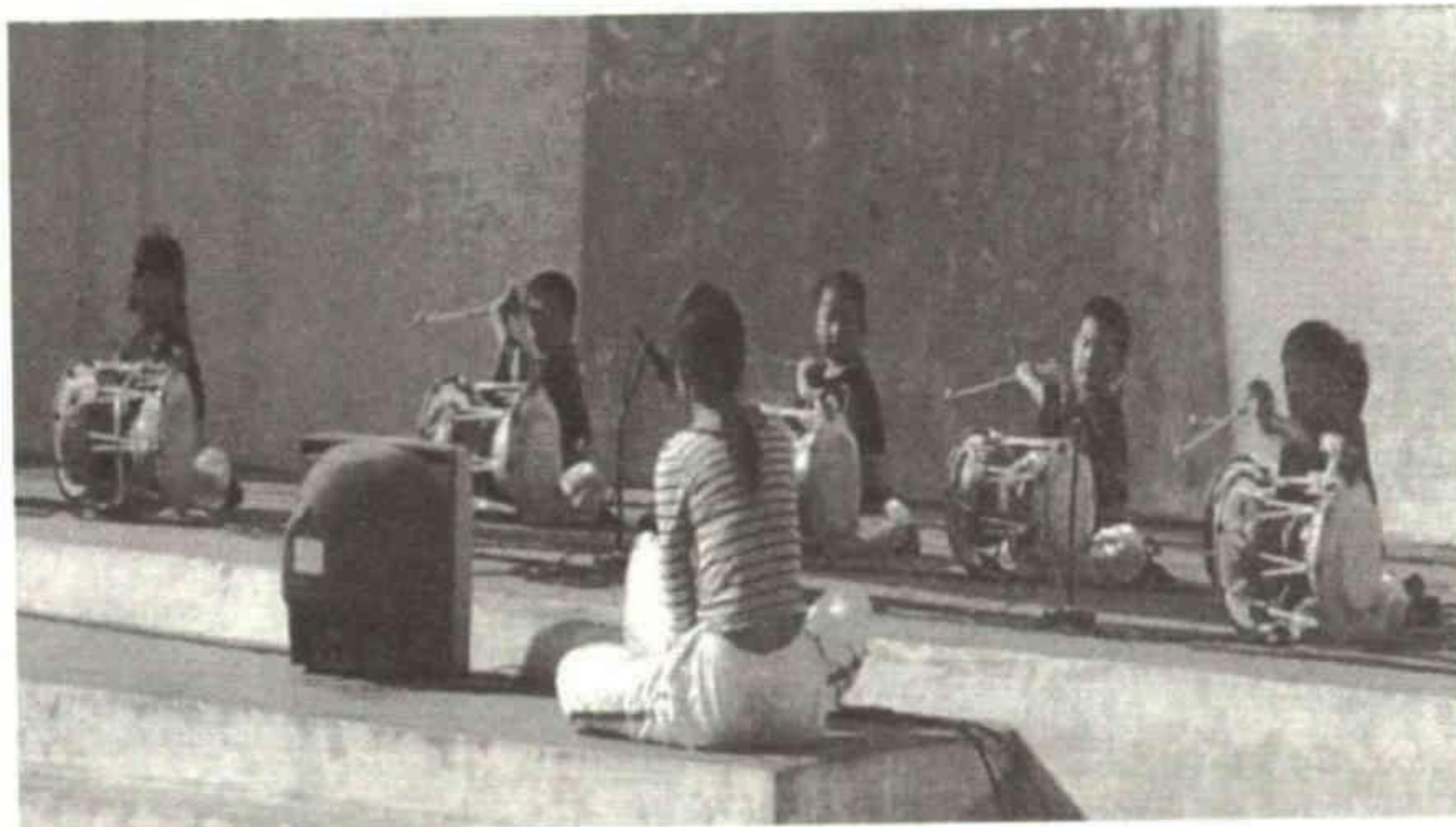
1시간 30분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자막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은 짐을 챙기면서 행사에 쓰인 의자 한곳에 모아주는 등 마무리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영화스크린을 철수하고, 의자를 정리, 땅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운 후 공원 구석구석 숨겨진 쓰레기는 없는지 다시 한번 잘 살핀 후 행사를 마무리 했다.

공연중 가요를 부를 땐 서로 손을 흔들며 노래를 따라 불렀고, 타악등 흥겨운 전통음악엔 추임새를 넣으면서 흥겨워했다. 또한 퍼포먼스공연과 마임을 접할 기회가 없었던 청소년들과 주민들



한우리의 시작을 알리는 길놀이 공연



열심히 장고를 치고 있는 아이들

【 제4회 지역문화축제 '한우리' 】

홍성의 문화예술단체와 개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된 지역문화축제 '한우리'가 벌써 4회를 맞았다.

작품전시 및 공연으로 이루어졌고, 일반인과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종이접기, 서예쓰기 등 다채로운 체험의 장을 마련하였다.

전시에는 서예, 전통공예품(짚풀, 옹기), 도예, 종이공예, 지역문화지 간행물 등 단체 및 개인이 참여했고, 전시한 작품은 개인이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홍성풍물연구회, 주부대학풍물팀, 동지문화센터의 길놀이가 조양문에서 출발해 푸른섬터 공연장 마당에 도착해 한껏 풍물을 뽐냈다.



서예를 하고 있는 학생



만해 한응운 선생의 유품사진을 보고 있는 주민

길놀이가 끝나고 사회자들이 고소한 입담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소향어린이집 아이들의 장고공연으로 축제가 시작되었다. 쿵딱- 쿵딱- 소리를 내며 초롱초롱 눈을 빛내며 선생님의 동작을 쫓아하는 모습이 귀엽기만 했다. 5분간의 장고공연이 끝나고 뒤를 이어 청소년내포제시조 공연, 홍주초등학교의 사물놀이, 홍성군청소년수련관의 댄스스포츠, 플루트(듀엣), 기체조, 민요, 추억의 하모니카, 노래교실 합창, 트럼펫 공연이 이어졌다.



댄스스포츠 공연중

플루트와 추억의 하모니카, 트럼펫 등은 개인이 참여하여 지역문화축제 '한우리' 취지에 맞는 '열린축제마당'으로 다채롭게 펼쳐졌다.



플루트 공연

댄스스포츠를 하는 어린학생들은 상대방을 바라보며 서로를 믿고 계속해서 춤을 쳤고, 학생들의 춤이 끝나고 뒤 이어 강사의 춤이 이어졌는데 춤이 정말 화려했다. 기체조는 우리 몸의 기를 운용시키는 방법을 여러 가지 동작들로 보여주었다.

그 외 가요와 가곡을 하모니카로 부니 색다른 소리가 만들어졌다. 요즘은 좀처럼 들어볼 수 없는 하모니카 소리를 오랜만에 들으니 어렸을 때 들었던 소리가 문득 생각났다.

매년 '한우리' 축제에 빠지지 않는 문화원 문화강좌 노래교실 수강생들의 합창이 이어졌다. 하나된 마음과 목소리로 화음을 내는 노래교실 수강생 여러분들의 실력이 날로 발전해 가고 있음을 실감했다.

'한우리' 마지막을 장식한 트럼펫공연은 웅장하고 잔잔한 소리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맑게 해주는 활력소 같이 공원 구석구석으로 울려 퍼져나갔다. 트럼펫 소리가 정적 속 메아리가 되자 사회자의 마지막 인사로 제4회 지역문화축제 '한우리'가 막을 내렸다.



장승제

- 은하면 화봉리 상가 마을 -



김정현 동화작가 구항초등학교 교감

- 조사 일자 : 1999년 2월 25일
- 조사 장소 : 충남 홍성군 은하면 화봉리 상가 마을 이선규씨댁
- 제보자 : 이선규(남, 83세, 보통학교 졸업, 농업)
 - 사는 곳 : 충남 홍성군 은하면 화봉리 상가 마을 705번지
 - 나서 자란 곳 : 사는 곳과 같음

이선규씨는 상가 마을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어른이다. 어려서 마을 입구에 장승이 서있는 것을 보긴 했지만, 장승제에 참여한 적은 없었다. 옛날에 마을 입구에 세워진 장승을 본 기억과 어른들로부터 들은 얘기들이 희미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 제보자 : 이한구(남, 53세, 고졸, 축산업)
- 이한구씨는 이선규씨의 아들이다. 옛날에 상가 마을에서 장승제를 지냈다는 얘기를 어른들로부터 들었다.

1. 명칭 : 장승제
2. 신격 : 도깨비, 오방신
3. 장승터의 위치 :

이선규씨의 기억에 의하면 마을 양쪽 입구에 장승을 세웠다. 옛날에는 마을 양쪽 편에 입구가 있었다. 한쪽은 광천으로 드나드는 고개로 화봉리 야동 마을로 통하는 길이었다. 또 하나



제보자 이선규씨

는 은하면 소재지로 가는 고개였다. 이 고개를 구슬고개라고도 한다. 하지만 마을에 불무골 고개, 구슬 고개, 홈래 고개, 개양재 고개 등의 이름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다른 마을의 장승제처럼 다섯 곳에 장승을 세웠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4. 장승터의 형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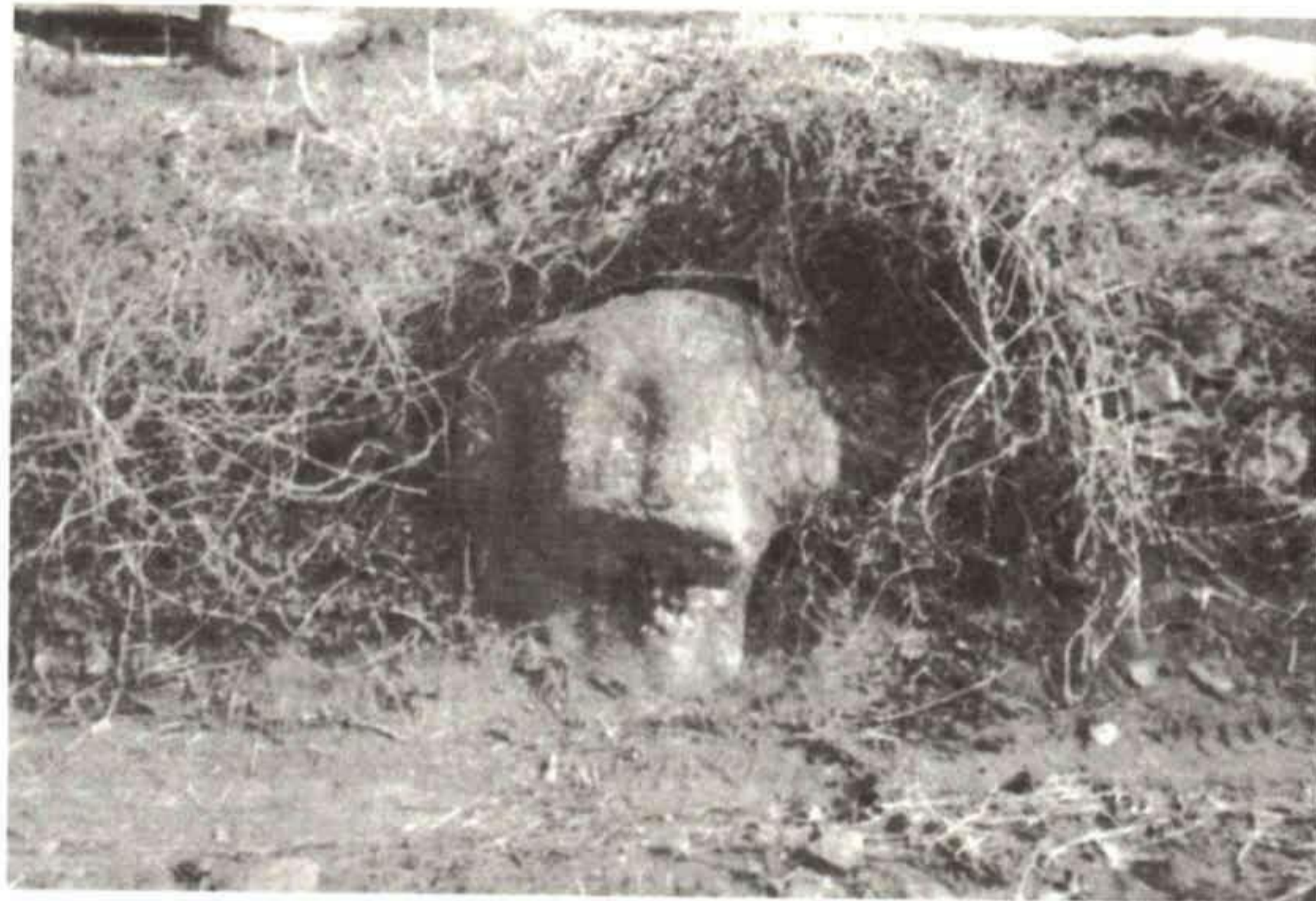
옛날에는 마을 양쪽 입구가 야트막한 고개였다. 이곳에 장승을 세워놓고 장승제를 지냈다. 장승은 남자와 여자 장승이 하나씩 있었다.

5. 제의 목적 :

도깨비불의 방지와 마을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기 위함이다.



상가마을 전경



여근석

6. 제일 :

정월 초순경에 지낸다.

7. 제의 주관자 :

생기 복덕이 맞는 사람으로 제관을 뽑아서 지낸다.

8. 금기 :

부정한 사람은 장승제에 참여하지 않는다.

9. 제물과 제의 절차 :

떡과 밥을 해서 지낸다.

10. 제의 비용과 결산 :

마을에서 농악을 치면서 걸립한다.

11. 마을 사람들의 신앙 태도 :

이선규씨의 기억에 의하면 대략 칠십 여 년 전에 장승제가 사라진 것으로 기억된다. 지금은 옛날에 마을에서 장승제를 지냈다는 것만 구전으로 전해질 뿐이다.

12. 유래 및 전설 :

옛날에는 이 마을에 도깨비불이 많이 났었다. 하루 저녁에 서너 집이 불에 탄 적도 있다. 불이 너무 많이 나서 밤에 잠을 설친 날도 있을 정도였다. 그래서 도깨비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승제를 처음 시작했다. 장승제와 관련된 전설은 없다. 다만 이 마을에 남근석과 여근석에 관한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상가 마을에서 야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입구에 여근석이 하나 서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백여 미터쯤 떨어져서 마주 보이는 곳에 남근석이 하나 서있었다.(이 남근석은 경지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땅속을 묻히고 없음)

이 남근석을 삼십 여 년 전에 한번 옮긴 적이 있었다. 마을에 심한 풍수해를 당해서 남근석을 복구 작업 하는데 사용했다. 그런데 그 후로 마을에서 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났다. 젊은 아주머니가 갑자기 사망하고, 마을 처녀들이 모두 가출하는 일이 일어났다. 마을에서는 이 남근석을 옮겼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남근석을 제자리에 다시 옮겨놓고 큰 제사를 지냈다. 이상하게도 그 후로 가출했던 처녀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왔다.

마을에서는 그 후로 이 남근석과 여근석을 건드리지 않았다. 남근석을 옮기면 여자가 바람나고, 여근석을 옮기면 남자가 바람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분노와 용서

김용신 수필가·김내과의원 원장



실연을 당했을 때 대개는 분노한다. 너무 가슴 아파서 졸도하기도 한다. 졸도는 죽음의 문턱까지 찾아간 무의식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더 괴로우면 죽겠다는 의식의 한 모퉁이를 지난 거다. 너무 사랑했기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조차 억압당하고, 절망과 비탄속으로 빠져든다. 삶의 의의마저 잃고 낙엽처럼 생명을 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절망과 죽음마저도 분노의 또 다른 형태일 따름이다.

분노는 모든 비극의 우두머리다. 사람이 치루어야 할 가장 값 비싼 살인 병기다. 화산처럼 폭발하는 분노도 있고 물처럼 스며들어 서서히 녹슬게 하는 그것도 있다.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다. 버림받았다는 극심한 절망 속에서 죽고만 싶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생명체 집단의 절망이 눈앞에 아른거려 아픔을 속으로 감춘다. 감추어진 분노는 이제 마술을 부리기 시작한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약한 조직이나 기관을 뒤지기 시작한다. 가벼운 위염이 있으면 이제 작업을 시작한다. 식사를 굶거나 짠 것, 매운 것을 막 먹게 하여 점차 위 점막은 더 충혈을 시작하여 드디어 출혈성 위염으로 발전한다. 치료라는 차단장치가 없으면 대량 위 출혈로 나아간다.

동맥경화가 조금 있으면 저밀도 콜레스테롤(소위 '나쁜 콜레스테롤')을 대량 생산케 하여 가속 페달을 밟는 것처럼 동맥을 막히게 한다. 혈압이 시작되고 있으면 에피네프린을 수십배 분출케 하여 지속성 고혈압을 만들어 낸다.

분노는 영혼도 이리저리 뒤진다. 오메가 3 등의 영양불균형으로 인한 정신병적 일시적 사고 방식이나 행동 양상을 진성 정신병으로 만들어 간다. 허용될 수 있는 편향적 사고경향을 사회

부적합 편집증 환자로 만들어 간다. 뇌 영양소 부족으로 인한 일시적 불안 신경증을 정신병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전립선 양성 비대를 전립선암으로 '투영'시키는 정신기전으로 암환자처럼 행동케 하기도 한다. 분노는 만병의 근원이며 영혼을 말살하는 최대의 살인 병기인 것이다.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더 깊고 //' 라는 시 귀절은 또 다른 분노의 영역을 말하지만 이것은 목적 지향적 의도된 신념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이 분노의 지옥사자를 어떻게 없애 버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너 '용서'이다.

용서는 용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해의 지혜가 있어야 하고 진실한 겸손이 있어야 된다. 아니 더 나아가서 종교적 체념이 있어야 된다.

자기자식을 죽인 살인자를 양자로 맞아들이는 용서는 용서의 극치를 말한다. 여기엔 종교적 달관과 인생자체에 대한 깊은 연민의 고뇌가 있다. 허무의 허무를 넘어서는 자기부인과 겸손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속적 용서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

속에 숨어있는 분노를 밖으로 들어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직접 상대방한테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가까운 사람이나 카운슬러에게 털어 놓아야 된다. 당사자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친구에게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얘기할 것이다. '너와 나'가 다 자기중심적 생각을 하니까 나를 50% 깎아서 다가서야 하는 것이다. 많은 오해도 풀리고 상대방의 처지도 이해될 것이다. 아버지같은 사랑도 가슴 뭉클하다. 아버지는 자식이 어떤 경우라도 받아들인다! 방탕한 아들도, 창녀가 되어버린 딸이라도 아버지는 받아들인다. 용서야말로 신이 내린 최고의 보약이다.

선사인의 숨결, 백제로 이어진 곳



조원찬 홍성공업고등학교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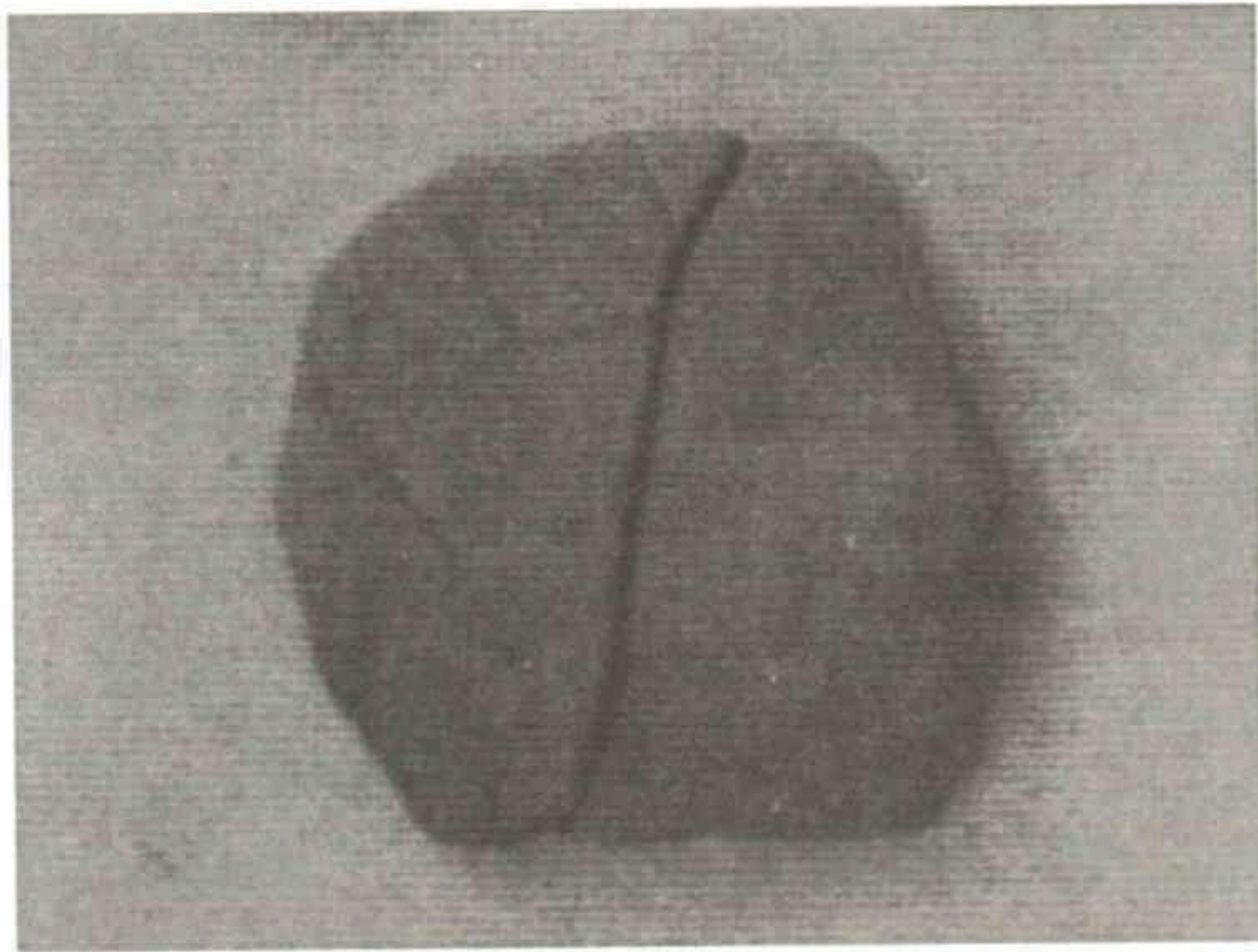
〈우리가 살고있는 홍성, 우리는 홍성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가 홍성을 모른다면 어느 누가 홍성을 알아줄까? 마음이 아픈 일이다. 홍성에는 선사시대 이래 무수히 많은 유적·유물이 남아 있다. 이것은 그저 역사적인 가치만 있을 뿐만 아니라, 천혜의 관광 자원이며, 공해 없는 상품이기도 하다. 늘 가까이 있는 것의 소중함은 모른다. 그래서일까? 우리가 사는 곳도 잘 모르면서 여행하면 먼 곳, 가보지 못한 곳부터 찾는다. 이제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을 홍성에 오도록 하면 어떨까?〉

《삼국사기》 지리지에 의하면, 백제시대에 우리 고장에는 1군(郡) 2현(縣)이 있었다. 그 중에서 결기군(結己郡)은 지금의 결성면 일대에 있었고, 그 아래에 속했던 사시량현(沙尸良縣)은 지금의 장곡면 일대에 있었다. 또한 지금의 예산 덕산면에 있었던 마시산군(馬尸山郡) 아래에는 우견현(牛見縣)이 있었는데, 이곳은 지금의 홍성군 갈산면과 서산시 고북면 일대이다. 이와 함께 백제시대부터 중국에까지 알려진 오산(烏山, 지금의 오서산)은 신령스러운 기운이 넘치는 ‘산(山)’으로 유명하다. 산에서 느낄 수 있는 신령스러운 기운을 중요하게 여겼던 백제 사람들. 그래서 백제 사람들은 오서산을 숭배하였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백제가 멸망하였을 때에도 빛을 나타냈다. 오서산의 신령스러운 기운을 통하여 기울어져 가는 백제를 다시 한 번 일으켜 보려고 노력했고, 이러한 움직임은 곧 백제부흥운동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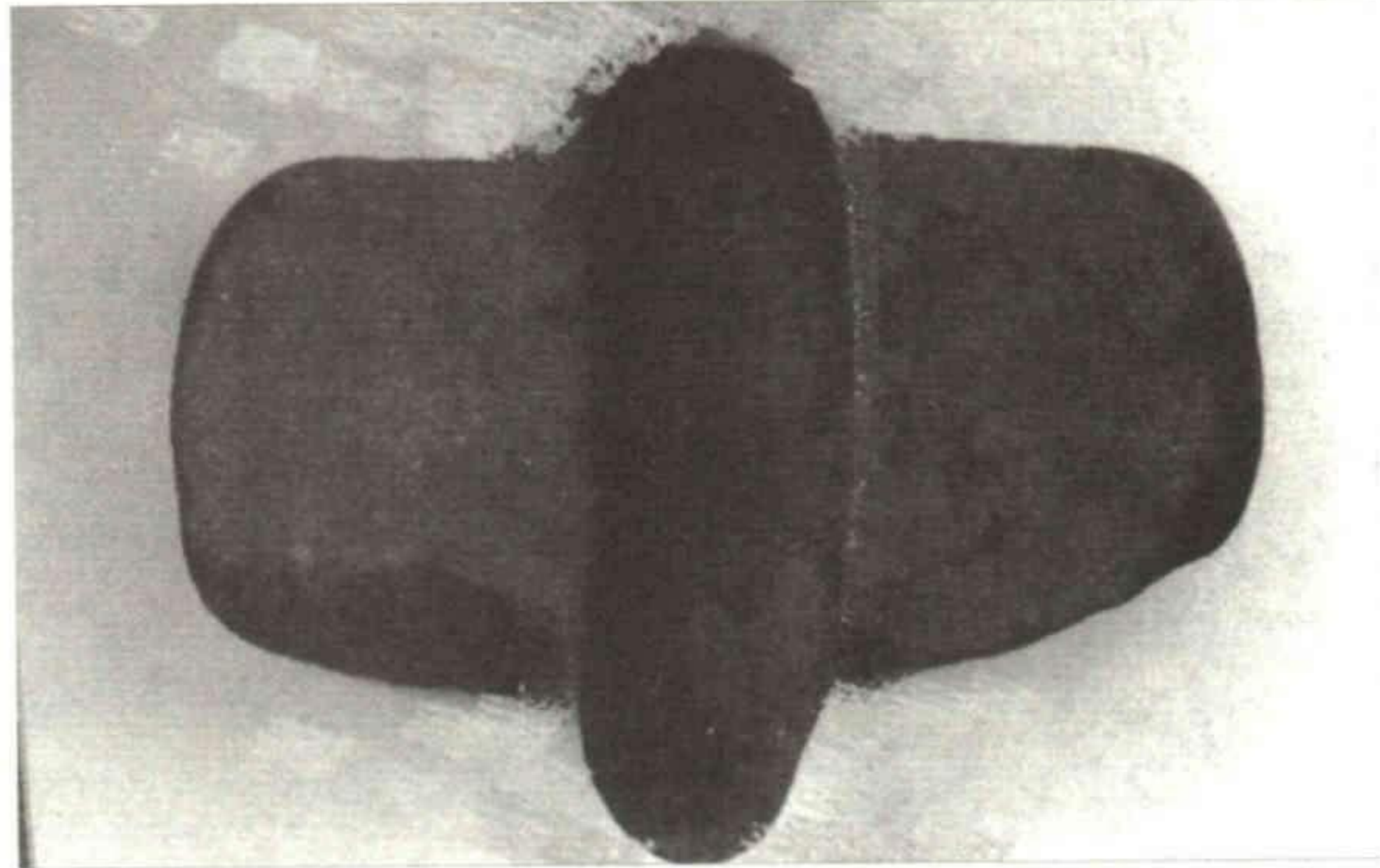
이러한 기록 자료들에 따르면, 지금의 결성면을 중심으로 한 갈산면에서 장곡면·홍동면에 이르는 넓은 지역은 백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된다. 또한 이곳은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토기 조각을 비롯하여 고인돌과 돌칼 등 다양한 청동기시대의 유물이 발견된 곳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곳은 선사시대부터 이미 사람들이 살았고, 계속해서 사회를 발전시킨 곳으로서 의미가 있다.

먼저 우리 고장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알려진 유물은 장곡면 대현리의 동굴 유적에서 발견된 빗살무늬토기(그림 1 참조)가 있다. 이 토기 조각은 완전한 형태가 아닌 조그만 조각으로 발견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고장의 역사가 신석기시대부터 분명히 존재하였음을 증명하는데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석기시대부터 사용되었던 도구로서 '갈돌과 갈판'(그림 2 참조)도 있다. 갈돌과 갈판은 곡식을 가는 도구로서 오늘날 맷돌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그림 1> 장곡에서 발견된 빗살무늬토기편



<그림 2> 결성에서 발견된 갈돌과 갈판

이어서 청동기시대와 관련된 유물과 유적들에 대하여 알아보면, 돌로 만든 도구를 비롯하여 토기, 고인돌 등의 예가 있다. 돌로 만든 도구로는 돌칼·돌도끼·흙자귀 등이 있다. 이러한 유물들이 집중적으로 발견된 곳은 은하에서 결성을 통하여 서해 바다로 이어지는 '학산천' 주변 지역이다. 은하면에는 대천리·금곡리·학산리 등이 있고, 결성면에는 금곡리·용호리·형산리 등이 있다. 토기는 은하면 학산리와 결성면 신금성터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었다.

이 외에도 우리 고장에는 냇물과 바다가 옆에 있고, 햇빛이 잘 드는 낮은 구릉이 있으면 어느 곳 이든 청동기~철기시대로 이어지는 유적이 있다. 특히 금마천 주변 지역으로서 흥동면의 팔괘리·구정리·문당리 등은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 발견된 석기류 가운데 팔괘리에서 발견된 것들은 대체로 기원전 4~3세기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 이 유물들이 발견된 곳을 중심으로 당시의 자연환경과 사람들의 생활모습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많은 유물이 발견된 신금성터 주변의 자연환경을 알아보자.

<그림 3>에 제시된 '신금성터 주변의 자연환경' 그림 자료는 선사시대 사람들이 살기 좋은 자연환경을 보여준다. 지금은 냇물이 좁아졌지만, 옛날에는 학산천이 더 넓게 흘렀다. 이러한 자연 조건은 선사시대의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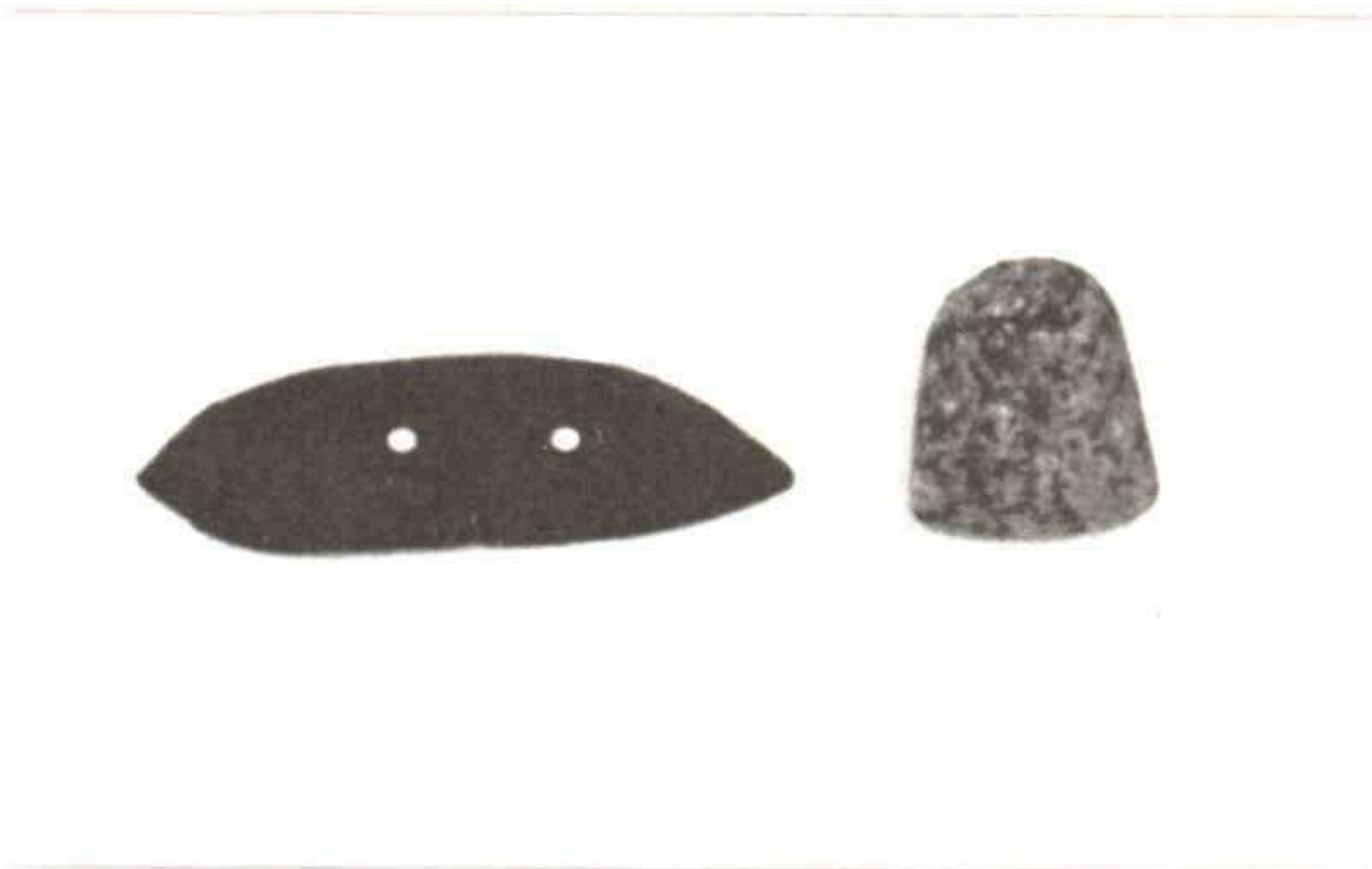


<그림 3> 결성면 신금성터 주변의 자연환경

람들이 물고기를 잡고, 약간의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하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을 제공하였다. 나아가

이렇게 낮은 구릉과 냇물이 어우러진 자연환경은 지금도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터전이 되고 있다.

다음에 제시되는 그림 자료들은 학산천과 금마천 주변에서 발견된 유물들이다. 석기류와 토기류가 중심을 이루지만 이러한 유물과 자연환경을 조화롭게 해석하면 당시 학산천 주변에서는 어떤 생활이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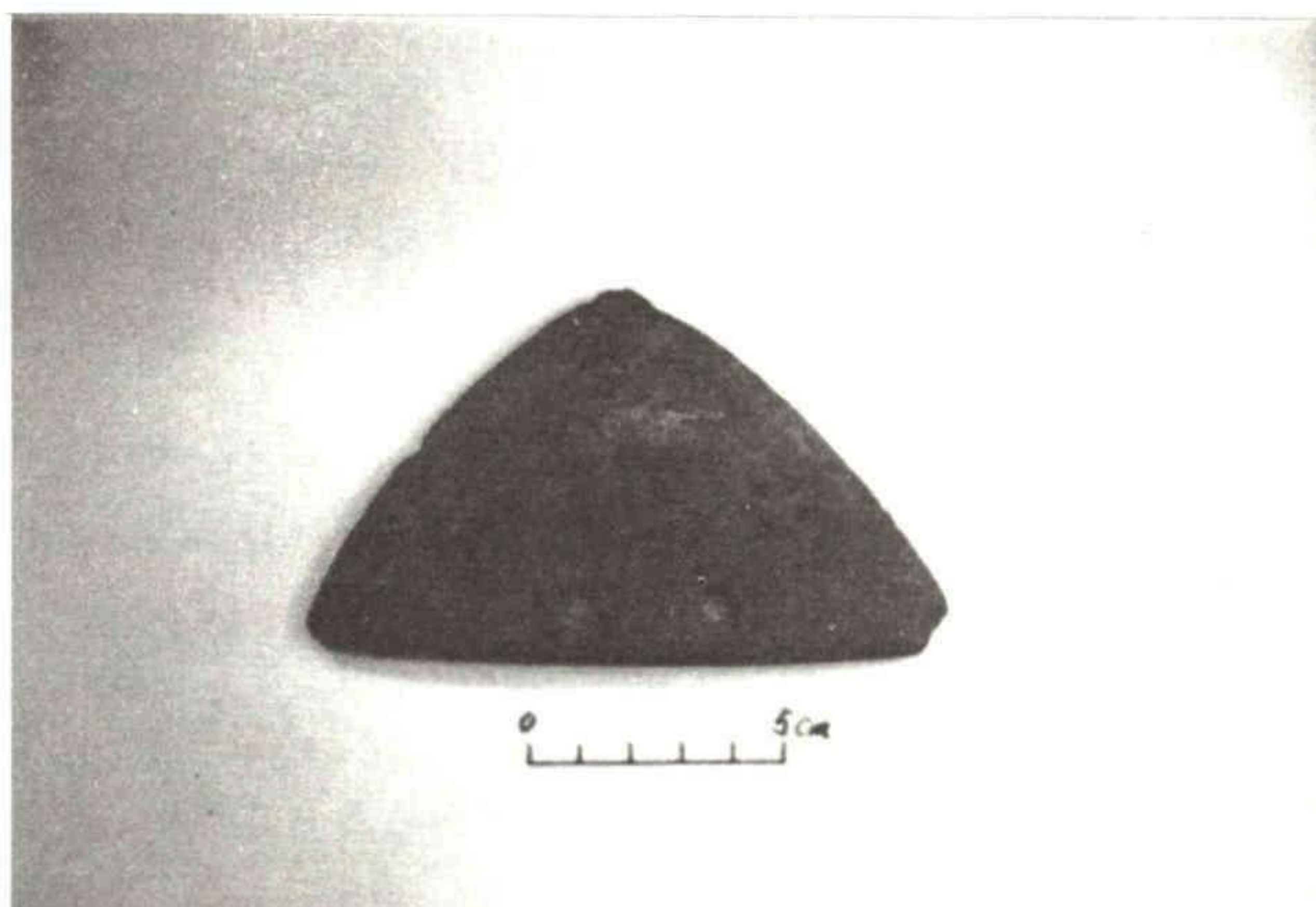
<그림 4> 결성면에서 발견된 반달돌칼과 돌도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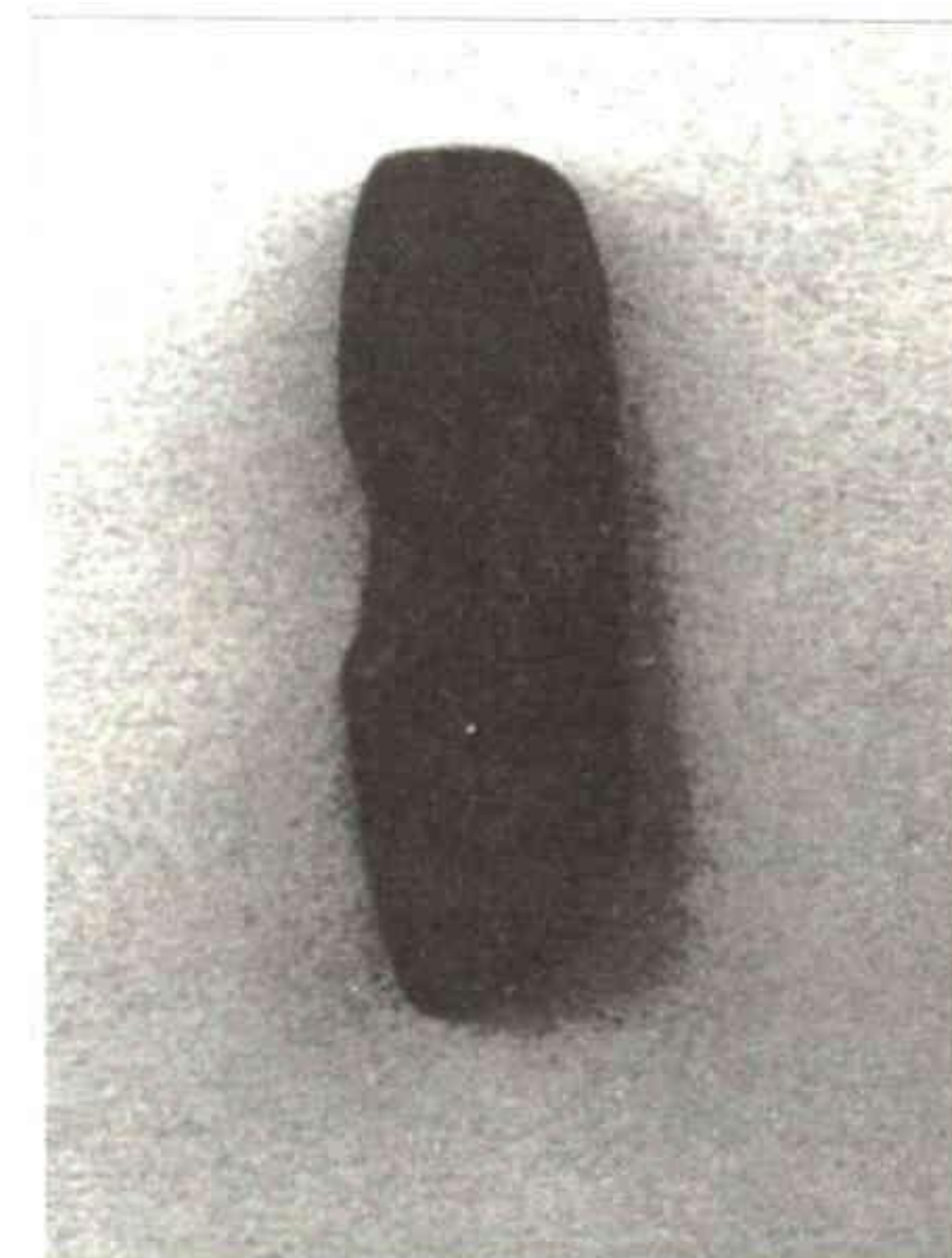
<그림 5> 반달 돌칼의 쓰임새

<그림 4>에서 볼 수 있는 반달 돌칼은 곡식을 수확할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그림 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가운데 구멍이 뚫린 곳에 끈을 넣어 묶어서 사용한다. 주의할 것은 곡식을 수확할 때, 돌칼이라고 해서 낫처럼 곡식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곡식의 이삭 부분을 끊어서 수확하는 것이다. 반달 돌칼과 비슷한 것으로 삼각형 돌칼(그림 6 참조)도 있다.

돌도끼는 폭이 좁은 윗 부분에 나무자루를 묶어서 사용하는데, 나무를 자르고, 다듬는데 쓰이던 도구이다. 홈자귀는 홈이 파인 부분에 나무 자루를 묶어 사용하며, 농사지을 때 땅을 파거나, 나무를 재료로 어떤 용기를 만들 때 사용하였다. 이러한 도구들은 돌로 만들었지만, 청동기시대에 널리 쓰였던 도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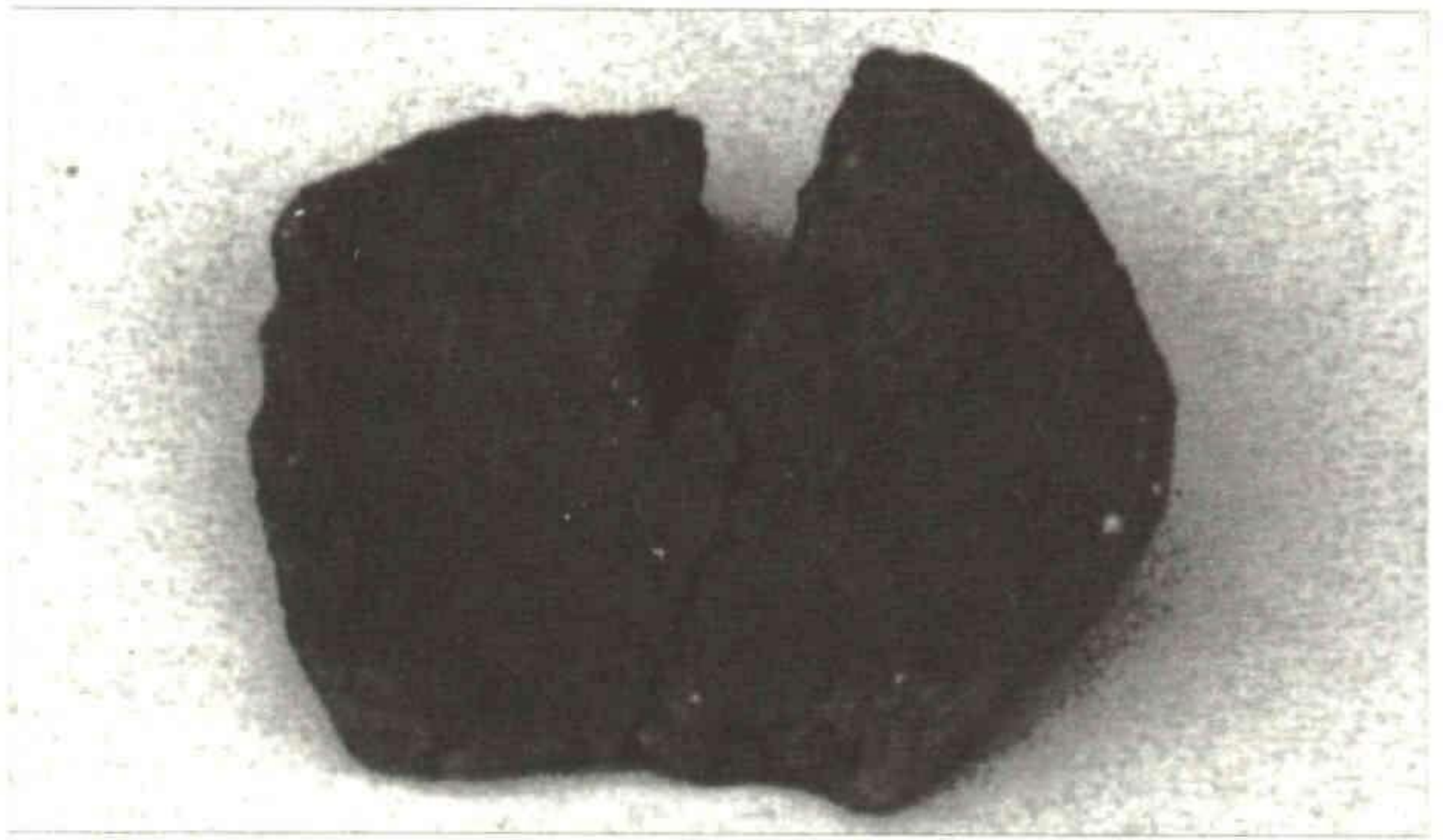


<그림 6> 홍동면 팔괘리에서 발견된 삼각형 돌칼



<그림 7> 결성면에서 발견된 홈자귀

청동기시대의 무늬없는토기들이 많이 발견된 내남마을은 동쪽의 학산천을 따라 60m 내외의 낮은 구릉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곳이다. 따라서 약간의 농사짓기와 사냥 및 물고기잡이 생활을 하던 청동기시대의 생활 조건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곳은 마을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60여년 전까지만 해도 밀물 때에는 바닷물이 마을 앞까지 들어와 작은 배가 다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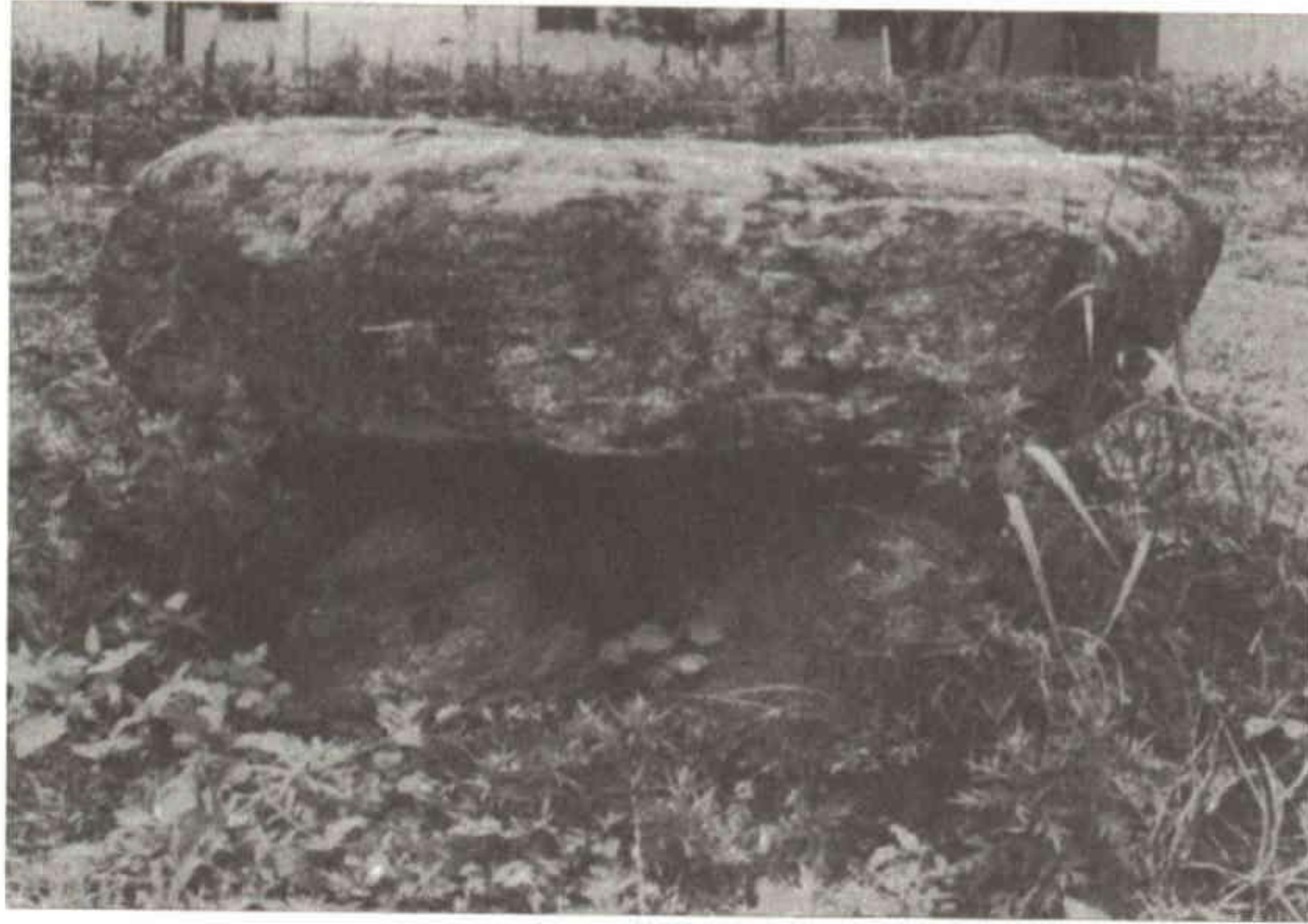
<그림 8> 결성면에서 발견된 무늬없는토기

다음으로 학산천 주변에서 발견된 고인돌에 대하여 알아보자. 우리 고장에는 두 가지 형태의 고인돌이 있다. 하나는 시신을 묻는 무덤방이 땅 위에 있는 북방식 고인돌이다. 다른 하나는 무덤방이 땅 속에 있는 남방식 고인돌이다. 그 중에서 북방식 고인돌은 은하면 금국리와 학산리에 있으며, 가까운 곳으로 구항면 태봉리에도 있다. 그러나 홍성지역에서 발견되는 북방식 고인돌은 한강의 북쪽에서 발견되는 고인돌처럼 거대하지는 않다.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 고장에서는 아직까지도 고인돌에 대해서 정밀한 발굴이 이루어진 것이 없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 고장에서 발견되는 북방식 고인돌은 이 고인돌을 만들어 쓰던 사람들이 홍성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서남해안에 폭넓게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이다. 왜냐하면 우리 고장의 고인돌은 한강 북쪽의 거대한 고인돌 사회와 남쪽의 끝자락에 있는 전라북도 고창군의 매산리 고인돌 사회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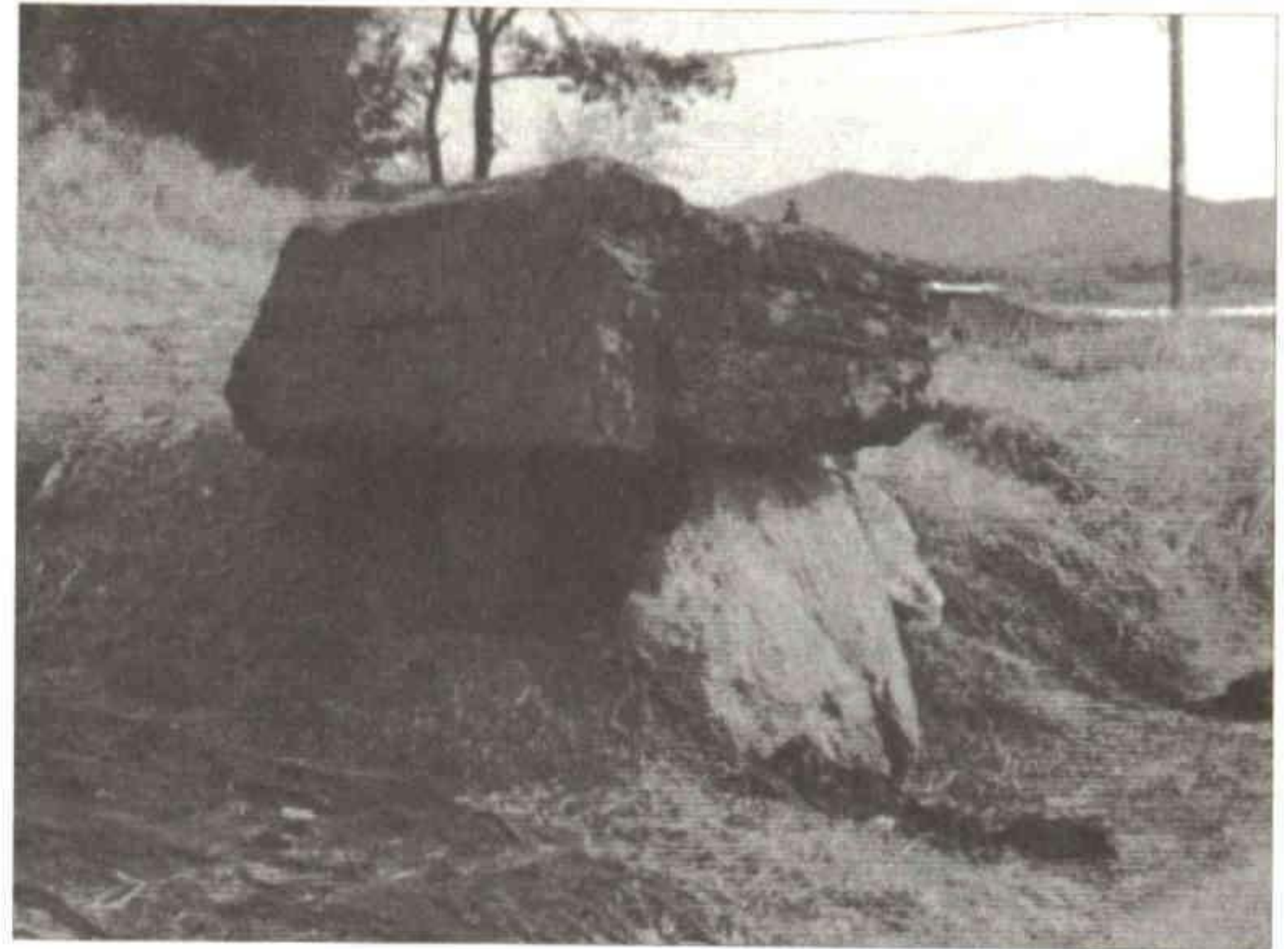
먼저 은하면 학산리의 고인돌에 대하여 알아보자. 학산리 내남 마을에서 거산 마을로 가는 언덕의 꼭대기 부분에 자리한다. 이곳의 자연환경은 학산천과 조그만 냇물들로 둘러 쌓인 곳이다. 대부분 해발 30~40m의 낮은 구릉이 펼쳐진 곳이며, 바다와도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아울러 동쪽의 금국리 고인돌이 있는 주변 지역까지 직선 거리로 약 5km 이상의 지역이 조그만 냇물을 끼면서 30~40m의 낮은 구릉이 연속적으로 펼쳐져 있다. 이러한 자연 환경은 물고기 잡이와 사냥 생활을 하면서 약간의 농경을 하였을 선사인들의 생활 조건에 적합한 자연환경이다.

고인돌은 내남 마을에서 거산 마을로 이어지는 구릉의 꼭대기에 있는 교회 옆에 자리한다. 지금은 주변이 밭으로 개간되었다. 고인돌은 시신을 매장하는 부분인 무덤방이 땅 위에 두어진 북방식 고인돌이다. 덮개돌은 길이(남북 방향) 220cm, 너비(동서 방향) 200cm, 두께 50cm 내외이며, 긴 쪽의 방향은 남북 방향을 취했다.

이어서 은하면 금국리에 있는 고인돌(그림 10 참조)에 대해서 알아보자. 고인돌이 있는 금국리 금



<그림 9> 은하 학산리 고인돌



<그림 10> 은하 금국리 고인돌

리 마을은 형산(衡山 205m)이 동남쪽으로 흘러내리다가 학산천을 만나 갑자기 낮아져 구릉을 형성시켜 놓은 곳이다. 해발 40m 내외의 높이를 가진 낮은 구릉이 남쪽으로 펼쳐지고, 학산천의 상류가 여러 갈래로 길게 이어지면서 많은 배후습지를 만들어 놓았다. 이곳은 또한 학산천을 통하면 바다도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이러한 자연 조건은 주변의 인접한 지역과 더불어 선사인들이 살기 좋은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다.

고인돌은 땅 위에 무덤방이 있는 북방식 고인돌이다. 무덤방의 긴쪽 방향은 동서 방향을 취했다. 고인돌의 규모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덮개돌은 크기가 길이(동서 방향) 270cm, 너비 170cm, 두께 90cm 내외이며, 무덤방을 만든 꺾돌의 크기는 길이 210cm, 너비 110cm, 두께 20cm 이다. 이와 같은 꺾돌과 덮개돌을 활용하여 만든 무덤방의 크기는 땅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길이 160cm, 너비 55cm이다.

이와 함께 학산천에서 구항~홍성읍 방향으로 고개를 하나 넘으면 구항면 태봉리이다. 이곳에도 북방식 고인돌이 있다. 고인돌은 태봉리에서 남서쪽으로 되천이 마을을 넘어 은하면 대율리로 통하는 고개의 오른쪽에 있다. 이곳의 자연환경은 보개산의 능선이 서남쪽으로 이어지면서 해발 100m 내외의 구릉을 만들면서 와룡천의 냇물을 만나면서 계곡을 형성시켜 놓은 곳이다.



<그림 11> 구항면 태봉리 고인돌

태봉리 고인돌은 구릉의 꼭대기 바로 아래 부분에 있다. 전체적인 모습은 땅 위에 무덤방을 갖춘 북방식 고인돌이다. 무덤방의 긴 쪽의 방향은 동서 방향이다. 무덤방과 덮개돌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덮개돌은 길이(동서 방향) 370cm, 너비 310cm, 두께 110cm 내외이다. 무덤방은 긴 쪽이 길이 180cm, 너비 98cm, 두께 20cm 내외이고, 짧은 쪽은 길이 98cm, 너비 70cm, 두께 18cm 내외이다. 모두 관관한 돌을 이용하여 만들었다.

가을 빈 밭에 서서



고광철 수필가 한국문협홍성군지부 회원

올해 가을은 꺾은 날이 없어서 가을 산행과 가을걷이하기에 불편함이 없어 좋았다. 따끈따끈한 가을볕에 가을걷이를 하다 보면 어느새 짧은 가을해가 저문다.

올 해도 뒷밭 한 쪽에 고구마를 두 줄 정도 심었었다. 여름 장마가 지나고 녁쿨이 너무 옷 자라기에 줄거리를 따서 반찬으로 볶아 먹곤 했다.

편한대로 앞쪽 줄에서 길게 자란 녁쿨에서 줄거리를 떼어내곤 했는데, 며칠 후면 녁쿨은 다시 길게 자라곤 했다.

그렇게 녁쿨이 무성하게 우거진 줄기들을 뽑아내고 고구마를 캐어 몇 개 삶아 먹어 보았는데 삶은 고구마속에 실 같은 힘줄이 켜켜이 박혀 있었다. 처음에는 영문을 몰라 하다가 주변에 물었더니 자라는 녁쿨에서 줄거리를 떼어 먹으면 그 상처가 고구마 속으로 남는 것이라 한다. 무심코 반찬거리로 먹었던 줄거리지만 그 아픔이 땅속 고구마에 고스란히 스며들었던 것이다. 모든 동식물의 환경작용에 나타나는 현상인 셈이다. 상처 받고 자랐을 고구마를 생각하니 숙연한 마음이 든다.

가을의 끝자리에 겨울이 다가 오고 있다. 추수가 끝난 빈 다리에는 서늘한 바람이 머물다 가고 노랗게 빨갱게 울긋불긋 변했던 단풍잎들이 바람에 낙엽으로 날린다.

누군 찢기고 누군 할퀴고 누군 파 먹혀서 상처뿐인 얼굴을 하고 오는 겨울을 맞으며 나뭇가지를 떠나 본래의 흙으로 돌아가고 있다.

온통 낙엽으로 쌓여가는 밭두렁에서 지나가는 세월의 윤회를 느낀다. 긴 여름 날 푸르름에 가려 보이지 않던 나뭇가지의 뒤엉킴이 보이고 잎이 떨어진 가지에 매달린 빨갱게 익어가는 홍시가 아름답게 다가온다.

지난여름 햇살은 따스했고 무더웠기에 식물들의 삶도 풍성 했다. 길고 뜨거운 햇살에 잘 자라주었고 넉넉한 열매를 주었고 섭섭하지 않은 결실을 주었다.

내가 가꾸는 한 퇴기의 작은 텃밭에서도 여름 햇살은 따스했었고 그 덕분에 밭곡식들이 잘 자라 넉넉하게 보답해주었다.

봄 감자도 먹을만큼 거두었고 고추와 들깨, 고구마 그리고 검은 콩도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수확을 가져다주었다.

이제 떨어져 쌓인 낙엽 위로 흰눈이 내릴 것이다

그 흰 눈 쌓인 땅속에는

또 다른 생물들의 겨울 삶이 계속 될 것이다

덤으로 거둔 마 뿌리와 녁쿨 강낭콩까지 합하면 내년 여름까지 먹을 잡곡은 무난하게 거둬들인 셈이다. 게다가 빈 호두나무 가지를 타고 오른 호박넝쿨에서는 누렇게 잘 익은 호박들이 주렁주렁 달렸으니 청솔모에게 모두 잃어버린 호두 잃은 섭섭함을 보상받는 기분이다.

산밤도 두어 되 쫓 물어 놓았고 은행도 서너 뿔박 갈무리 해 놓았으니, 올 겨울 내 간식은 먹을만큼 장만한 셈이다.

아침저녁으로 찾아오는 산새들의 노랫소리가 좋아 가지 끝에 매달린 홍시들은 그냥 뇌둘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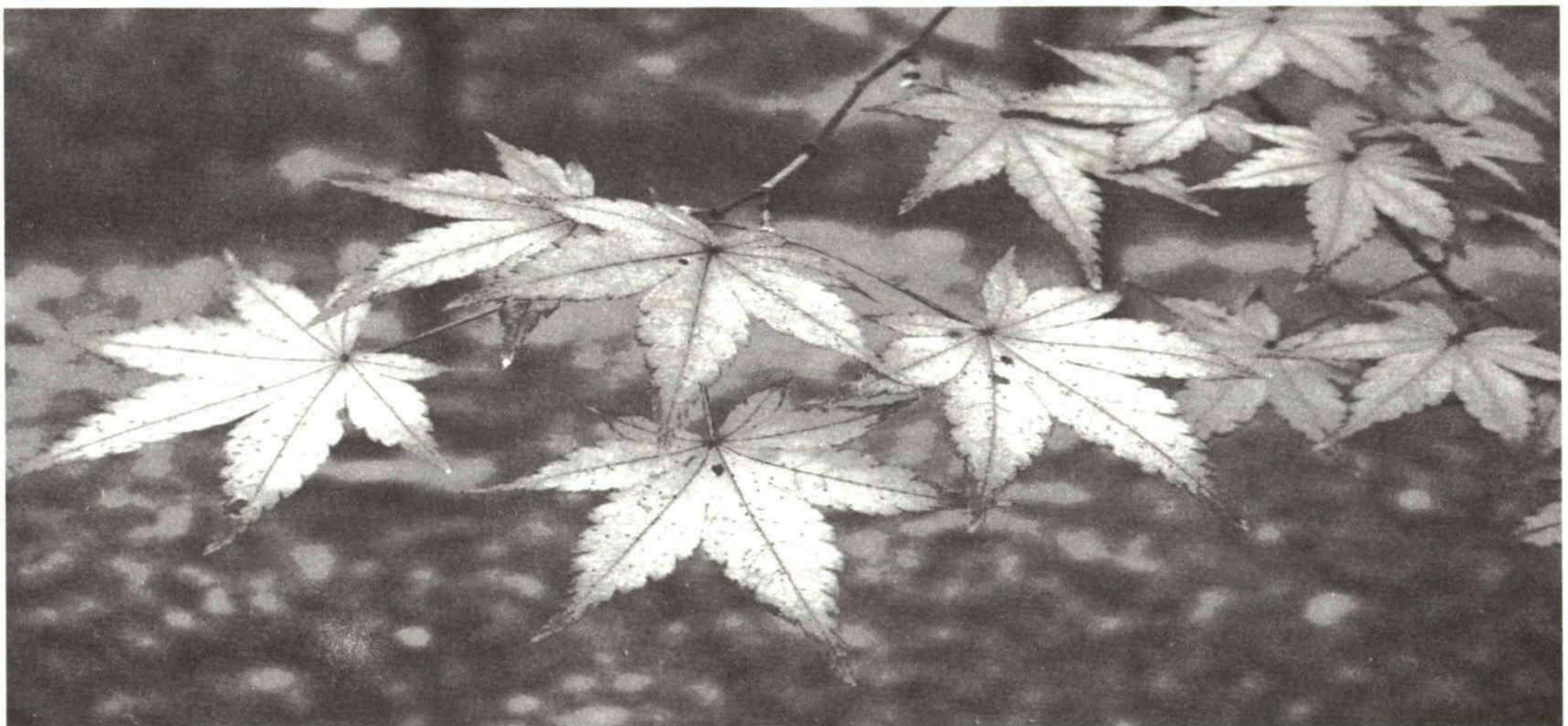
이제 떨어져 쌓인 낙엽 위로 흰눈이 내릴 것

이다. 그 흰 눈 쌓인 땅속에는 또다른 생물들의 겨울 삶이 계속될 것이다.

땅속에 모아 둔 먹이를 먹으며 긴 겨울을 지낼 것이고 잎이 진 나뭇가지들은 이듬해 꽃눈이나 잎눈으로 다시금 싹틀 때까지 내면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한 퇴기 조그만 밭에서도 땅위나 땅속이나 늘 진솔한 삶은 이어지고, 계절들도 변하면서 이어지고 있는 세상사가 바로 인간사와 별 다름이 없는 것 같다.

겨울이 다가 오는 빈 밭에 서서 스쳐가는 찬바람을 맞으며 살아가는 의미를 생각해 본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한지

이 글은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한지(이승철지음, 현암사)에서 발췌한 자료이며, 우리한지를 알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조선시대

조선시대의 제지를 통제하는 기관이 설치되고, 기술과 원료가 다양해졌으며, 종이의 용도도 대중화된 중요한 시기이다.

조선전기

조선시대의 종이는 그 쓰임새가 다양해 전국에 걸쳐 생산되었는데, 대표적인 종이 생산처로 전라도 전주, 남원, 경상도 경주, 의령과 조지서를 들 수 있다. 태종(1415년) 때는 문물제도의 개혁과 문화적 관심으로 국영 조지소를 설치해 관영화하였고, 닥종이를 이용한 저화(楮貨)제도의 정착에 고심하는 등 제지 공업의 증흥에 노력하기 시작했다. 세조(1456년) 때 조지소를 조지서(造紙署)로 개칭했으며 역대 왕은 이 조지서를 통하여 당시 급격히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원료 조달, 종이 규격화, 품질 개량을 도모하였다. 조지소가 가장 활발히 활동한 시기는 세종 때였다. 세종 때는 서적 간행 정책으로 넓은 분야에 걸쳐 학문이 발달했으며, 그 결과 조지소의 기능과 역할이 크게 확장되었다. 조지소는 관리·운영을 맡은 도제조(都提調) 1명, 제조(提調) 2명, 별좌(別坐) 8명, 별제(別提) 4명, 사지(司紙) 1명 등 모두 16명과 그 아래에 종이를 직접 생산하는 지장인(紙匠人)과 그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체아직(遞兒職)을 두었다. 조지소의 제지 원료는 관청에서 모두 공급하였으며 백저(白楮), 폐석(弊席), 휴지(休紙) 등이 모두 제지에 이용되었다.

이렇게 조지소 같은 관영 지소의 설립은 고려이래 지속되어 온 수공업 형태가 완전 해체되어 지방 행정 조직에 편입되거나 중앙 관사에 예속되어 관영 수공업 체제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제지 기술이 새롭게 정비되고 발전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특히 넓은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세종 때의 학문 발달과 서책 간행은 조지소와 지방 지소의 생산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이 시기에 닥나무 도입과 생산 증대를 위한 다각적 노력, 그리고 닥의 부족을 메우기 위한 대체 지료와 혼용 지료 개발 등은 조선 때 제지 수공업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로 손꼽을 수 있다.

태종 12년(1412년)과 성종 6년(1475년)에 중국에서 지지술을 들여오려는 노력도 제지 기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모두 제지 수요 확대에서 온 결과이다. 결국 조지소의 설치는 제지술은 물론 인쇄술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관원의 부패와 관리 허술, 종이 질의 저하, 인력 수급 차질이라는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관원의 부패와 관리 허술은 지장 통제와 직결되어 곧바로 종이 생산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고, 거기에 선상노(選上奴) 같은 보충 인력을 제대로 충원하지 못해 결국 조지소는 정상적 생산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제지법

조선시대는 초기부터 경제적 종이 사용과 질 좋은 종이 제조에 심혈을 기울였다. 조선 초기에 서책 인출이 급증하자 다만 이용한 기존 제지법으로는 책지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 새로운 제지법과 대체 원료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였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보면 조선 초기 왕들이 중국과 일본의 제지법과 원료 중 좋은 부분을 배우려 한 것이 잘 나타나 있다. 태종 12년(1412년)에 “요동 사람 신득재(申得財)가 화지(華紙)를 만들어 바치니 득재에게 쌀과 면포를 하사하고 지공(紙工)에게 전습하도록 하였다.”는 기록은 양질의 종이를 제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세종 때 종이 질의 개량을 위해 보급형 책지로 서책을 인출하는 것 외에 고급지 조달을 위하여 일본에서 왜저(倭楮:일본닥나무로 안피를 말함)를 수입하여 책지를 만들게 한 일도 있었다. 『성종실록』에 의하면, 일찍이 지장 박비회(朴非會)에게 사은사(謝恩使)를 따라 북경에 가서 중국 제지법을 배워 오도록 한 기록이 있다. 그리하여 성종 16년(1485년)에 수정하여 간행한 『경국대전(經國大典)』 「공전(工典)」 재식(栽植)에는 종이 원료가 되는 닥나무를 밭에 재배하여 원료를 확보한 기록이 있다. 잡령(雜令) 조에도 자문표지(咨文表紙)를 조잡하게 제조한 장인에게는 체형을 가한다는 조항과 함께 종이 규격을 명시했다. 제지술을 개량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의지는 원료 채용 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대나무나 저피 등 처리가 까다로운 원료를 써서 제지한 것과 우수한 전충제(填充劑)와 황촉규(黃蜀葵)를 박비회의 중국 견습 이후에 더욱 더 널리 보급되어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지질 개발에도 힘썼는데, 조선에서 자체 개발한 종이인 태지(苔紙)에 대한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후대로 갈수록 종이 원료가 단순해지고 종이 질도 나빠졌다. 세조 3~4년(1457~1458년)의 “각 도에서 경지(經紙)를 모아 해인사(海印寺) 장경(藏經)을 인쇄하는데 경지로는 순왜지(純倭紙)와 교왜지(交倭紙), 잡초지를 사용했으며 표지는 송염지(松染紙)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종이 종류가 세종 때보다 다양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성종 때에 이르러 조지소에서 만든 종이는 품질이 과거와 같이 정제되지 못하였고, 종류도 저지 이외에는 고정지(藁精紙)와 유목지(柳木紙) 두 종류에 불과했다. 비록 지질이 예전처럼 정제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성종 임금이 쓰는 편지 종이는 잘 만들어진 금전지(金鈿紙)였다.

중국 선진 제지 기술의 도입으로 7세기 중엽 이후 처음으로 새로운 제지법을 사용하여 얇고 균일한 종이를 제조할 수 있었다. 이는 조선 초기와 그 전후시기를 구분하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일본·중국의 제지법이 전승되었지만 당시 중국과 일본의 제지 기술은 모두 수룩법(手漉法)이었던 데 비하여 우리나라 재래 제지법은 유부법(流浮法)이었다. 이러한 제지법의 차이는 원료와 초지 방법일 뿐, 다른 나라의 제지법을 받아들여 우리화했다는 사실이 주목할 만한 일이다. 홍만선(洪萬選)의 『산림경제(山林經濟)』에는 그 당시 닥 원료와 종이 만드는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흑피(黑皮)가 붙어 있는 것을 ‘저(楮닥)’라고 하고 흑피를 벗긴 백피를 ‘곡(穀)’이라고 칭했다. 산골짜기나 돌 주변 마른 땅에 음력 2월에 씨를 뿌려 겨울에는 마를 덮어 따뜻하게 하고 심은 지 3년이면 베어서 썼는데, 가을에 잎과 줄기가 누렇게 되면 베어서 삼을 찌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찌서 껍질을 벗겼다. 이러한 닥 원료를 삶는 증해용 약품으로는 나뭇재, 보릿재, 짚재 그리고 석회의 일종인 조개껍데기재를 썼다. 초지법(抄紙法)으로는 이 같은 천연 알칼리로 삶은 백피를 흐르는 강물에 며칠이고 담가 씻어낸 뒤, 잿물을 빠지게 하여 방망이로 두들겨서 고해한 다음 지통에 물을 붓고 잘 풀어서 지료(地料)를 만들었다. 여기에 초지시의 분산제로서 느릅나무의 껍질이나 황촉규 뿌리에서 나오는 점액질을 넣어 고르게 섞고 발로 떠냈다. 재어 놓은 습지 바탕 위를 널빤지로 덮고 눌러 짜서 물기를 가급적 없앤 다음 바위나 널빤지, 들판이나 방바닥(지방) 위에 펴서 불에 때어 말렸다.”

분산제에 대해서는 18세기 말엽 실학자 이규경이 「지품변증설(紙品辨證說)」에 활척수(滑漉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닥풀이나 느릅나무 점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천연 점액질 중 최상품은 아욱과에 속하는 황촉규 뿌리이다. 적어도 19세기 중반 전후부터 활발하게 쓰여 왔고, 그 이전에는 느릅나무 껍질을 선호해 보급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화지 제조론(火紙製造論)』의 저자 서건남(西建男)은 일본의 황촉규 유래에 대해 설명하면서 흔히 일본에서 말하고 있는 일본 기원설을 부정하고 황촉규는 역시 중국에서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건너간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자연염색을 한 가공 염색지도 많았다. 종이 염색에는 여러 식물 염료를 사용하여 색에 따라 종이에 직접 염색하는 방법(後染法)과 종이를 뜨기 전의 반죽에 염료를 섞어 끓인 다음 종이를 만드는 방법(渲染法)이 있다.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규합총서(閨閣叢書)』, 『산림경제』에도 종이 염색에 관한 기록이 전해진다.

뇌졸중(중풍)

柚村 김영성 활기공 강사

1. 뇌졸중이란

뇌속으로 이어지는 동맥과 지류의 혈액에 의해 산소와 영양분이 운반되는데 이 혈액의 운반이 막히면 그 부위의 뇌세포가 죽어 뇌졸중이 되는 것이다.

뇌혈관이나 뇌동맥이 응혈로 인해 막히거나 굳어지는 것을 뇌경색이라 하며, 뇌속의 동맥이나 혈관이 파열되는 것을 뇌출혈이라 한다.

2. 뇌졸중의 증상들

〈약한 증상 - 초기〉

-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럽다.
- 사래가 잘 들린다.
- 대소변을 지린다.
-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린다.
- 의식이 멍해진다.
- 하품이 잦다.
- 손발이 계속 저린다.
- 물건을 자주 놓친다.

〈심한 증상〉

- 얼굴, 팔, 다리 어느 한쪽에 힘이 없거나 감각이 없어진다.
- 이유 없이 심한 두통이 일어나고 머리가 무거워 진다.
- 말하기 어렵거나 알아듣기 어렵다.
- 눈이 흐리거나 시력이 아주 떨어진다.
- 까닭 없이 현기증이 일어나고 신체가 불안정하다.(갑자기 쓰러진다)

- 위 증상들이 한꺼번에 일어난다.(중증)
- 뇌졸중의 1/3은 며칠 몇 주일 전에 한두 차례 전조가 일어난다.
- ※ (전조현상이 일어날 때 얼굴 혈색이 아주 나빠져 주위에서 귀뜸해주고, 응급조치를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3. 뇌졸중의 예방조치

① 규칙적인 운동으로 혈액순환 촉진

- 손뼉 치기, 손목 흔들기, 팔 내들리기 등 손을 많이 놀려 뇌세포를 자극시켜 주어야 한다.(약손 만들기 활기공이 효과적-다음에 소개)
- 발 운동을 많이 해준다.
 - 많이 걷기 - 식후 30분 1회 40분 이상 실시로 심장을 강화시킨다.
 - 다리를 올려놓고 흔들기와 발끝 부딪히기로 신장을 강화시킨다.
- 목운동을 꾸준히 한다.
 - (목 뒤 근육이 뭉치면 만성두통이 된다)
 - 목 문지르기(목 뒤, 옆, 앞)
 - 경골 눌러주기, 문질러 주기
 - 목 돌려주기
 - 목 깎지 끼고 뒤로 재끼고 숙여주기

② 소변을 순화롭게 해준다(신장(콩팥)튼튼히 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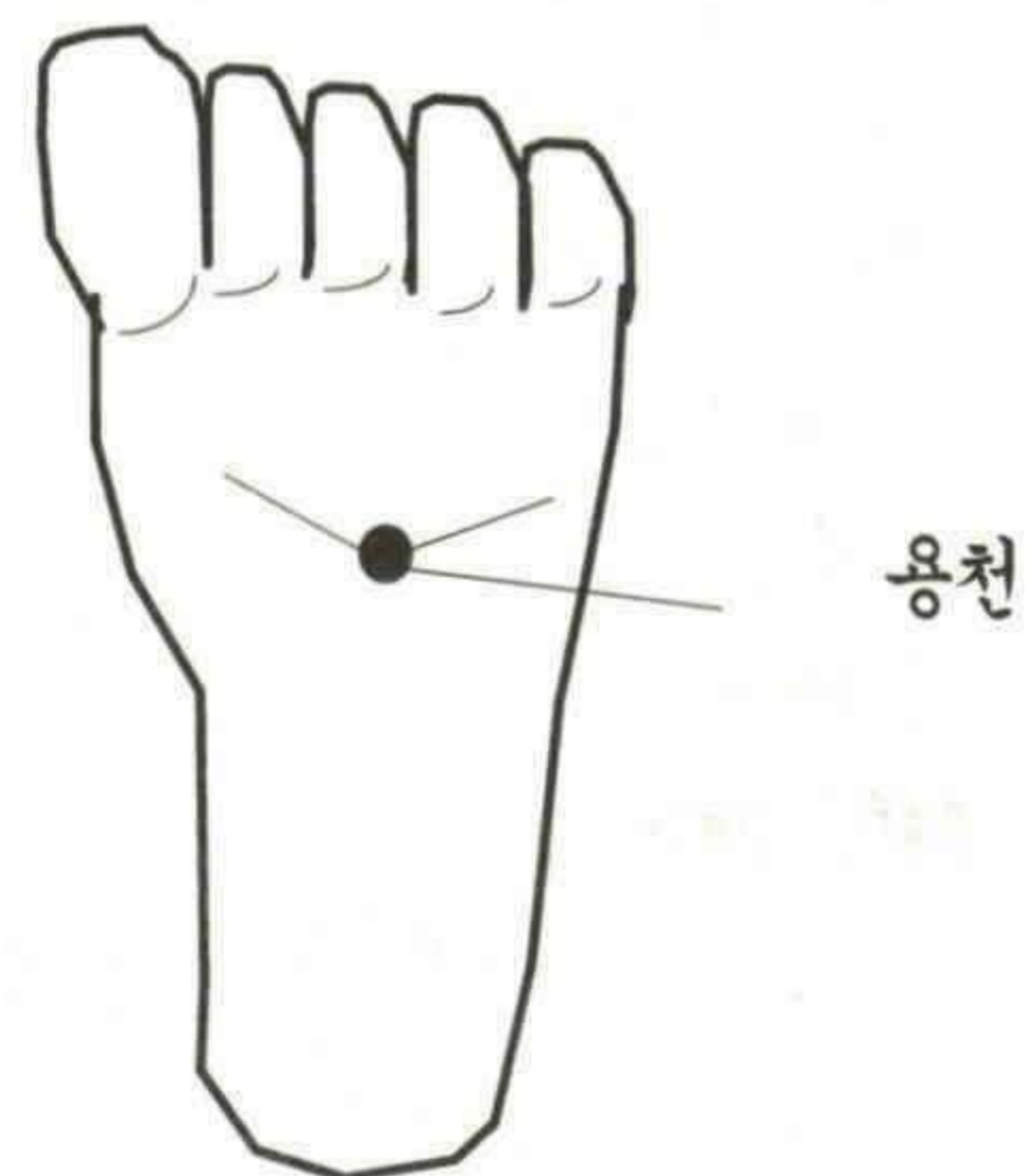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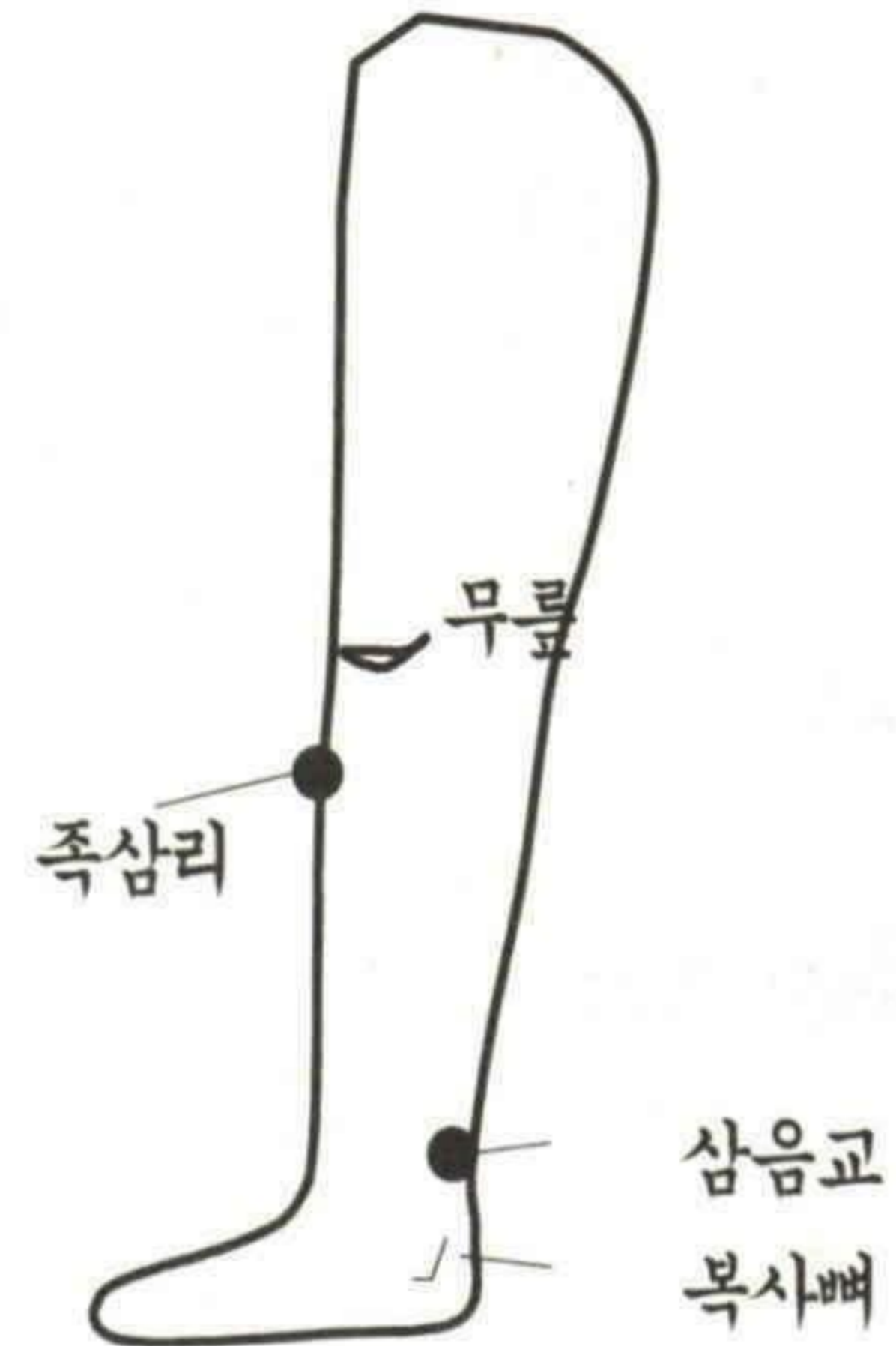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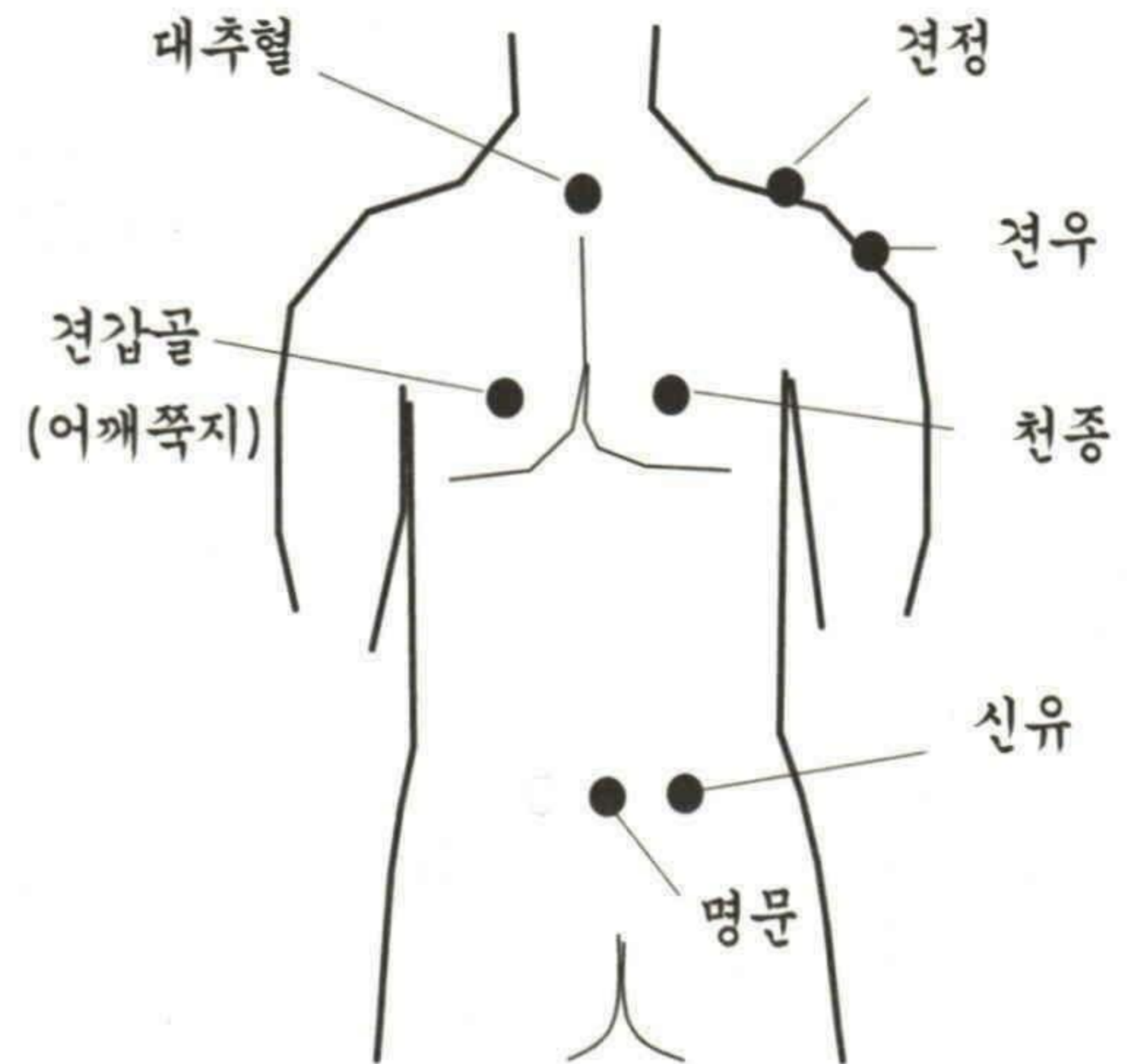
- 물을 많이 마신다.
- 아랫배를 두드리고 문지르기
- 배꼽 반대 허리 위(명문, 신유)를 손바닥으로 문지르고 두드려준다.
- 온좌욕 등으로 하체(방광부위)를 따뜻이 해준다.(잠자기 전)

③ 올바른 식사 습관 권장

- 과일, 채소 많이 먹기
- 어류(생선) 1주에 최소 2회 이상 먹기
- 당근 1일 1개먹기
- 계란 노른자는 1주 3개 이내로 먹기
- 마늘, 양파, 시금치 많이 먹기
(마늘은 굽거나 찌서)
- 닭, 오리고기 - 껍질 벗겨내고 요리하기
- 소, 돼지고기 - 기름기 완전히 제거해서 먹기

④ 중풍예방을 위한 활기공

- 피로와 스트레스를 바로 풀어준다.
(약손 만들기, 활기춤)
- 수건 말아 목풀어 주기
 - 타월 3장을 단단하게 말아서 둥근 베개를 만든후 베개를 묶는다.
 - 타월 베개를 뒷목에 베고 누워 목을 좌우로 굴러 굳은 목을 풀어준다.
 - 대추혈, 견갑골(천종혈) 밑에 타월 베개를 놓고 몸을 굴리며 풀어준다.
- 손으로 굳은 경혈 풀어주기
 - 손가락을 찬물에 적셔 머리 전체를 골고루 두드려 주고 머리 뒤를 훑어 내린다.
 - 견정혈, 견우혈을 눌러 주고 손바닥으로 두드린 뒤 쓸어준다
 - 무릎 아래 족삼리를 주먹으로 100회 두드린다
 - 복사뼈 위 삼음교를 100회 눌러준다.
 - 발바닥 앞쪽 용천혈을 주먹으로 100회 두드리고 문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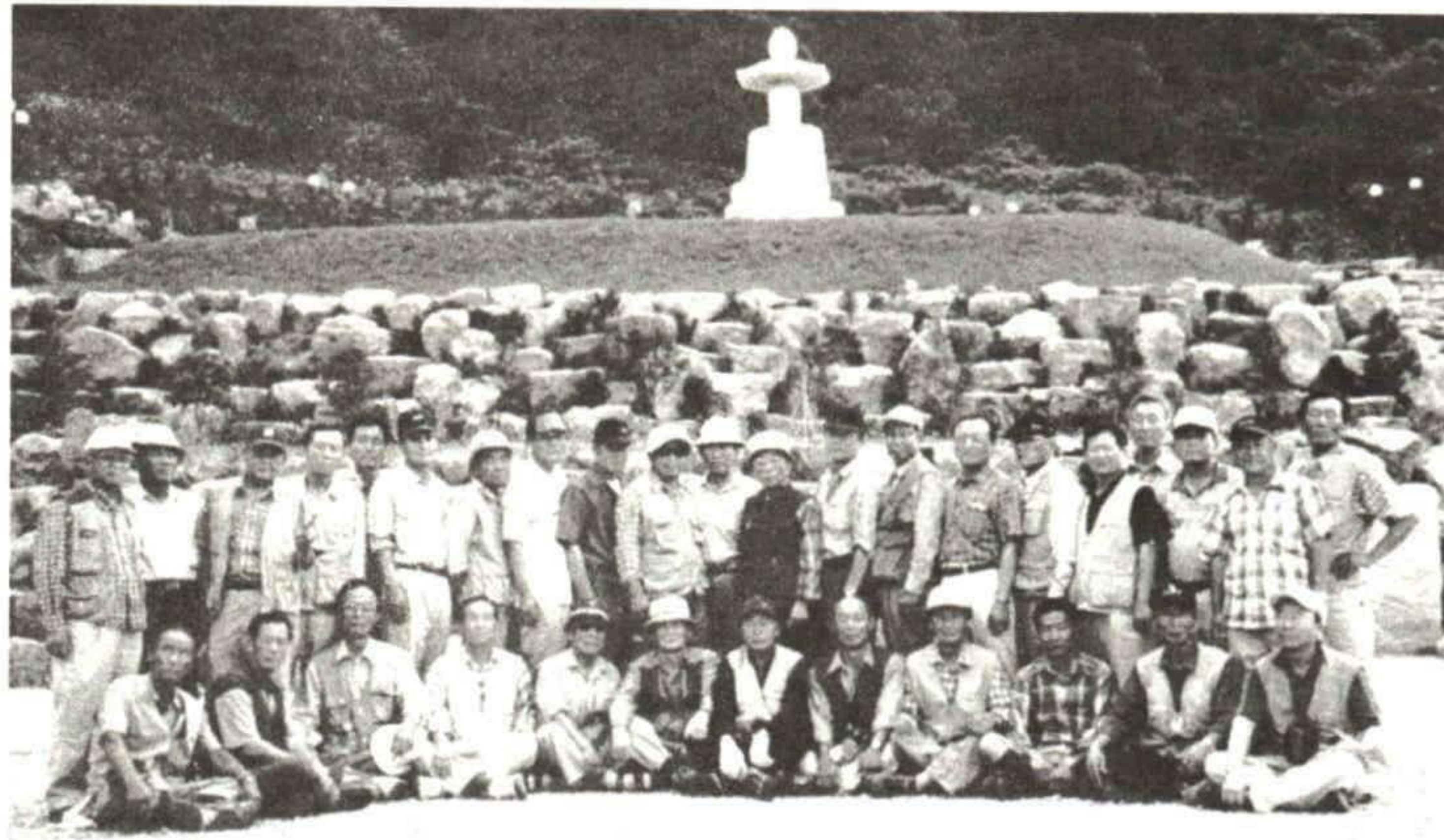
김영성 선생님은 지금은 정년하신 교장 선생님이신데 20여년간 활기공 연구에 전념하셨고, 중국과 일본의 氣에 대한 조예가 깊으신 분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원고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계속 연재토록 주선하고 있습니다.

- 편집부 -

조양(朝陽) 산우회



정태봉 조양산우회 산행대장



조양산우회 회원들 울릉도에서

조양산우회는 대개가 홍성군내 각 기관·단체장들이었던 분들과 그 임직원들이 정년퇴임 후 건강과 우정을 지속하고 재직시 바빠서 못 다한 자연보호와 환경정화에 앞장서는 단체로 등반의 각고와 극기로 인생지구력을 연마하고 산행의 동고동락으로 우의를 굳건히 하며, 흘러간 세월의 회고와 반추로 남은 생의 가치관을 성숙시켜 나가는 이 고장의 고결한 모임이다.

1999년 3월 8일 초대회장 장호섭씨로 발족되어 지금까지 1개월에 3봉씩 1년에 36봉을 5년 동안 180여 봉을 등반한 기록을 과시하기도 하는 산우회다.

이제, 그 경력을 토대로 아무쪼록 건전하게 도약하여 산을 통한 완성된 자연과 삶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앞날을 약속하고 있다.

「조양산우회 산행기」

울릉도(鬱陵島) 성인봉(聖人峰)

◎ 천혜의 섬 울릉도

조양산우회는 1년에 한번씩 1박 2일 내지 4박 5일 산행코스로 중국의 태산과 일본 대마도의 백운봉 등 외국의 먼 여행과 등반을 하며 그 삶을 지구촌의 자연에 조화시키면서 심신을 단련하고 있다.

2003년에는 1,500년전의 우산국의 신비를 체험해보고 기암괴석과 천혜의 관광자원이 살아 숨쉬는 울릉도 성인봉(984m)을 등반하고 왔다. 그곳에는 현포리와 남서리 부근에서 출토되는 고분과 토기를 분석하여 대략 상고시대부터 사람이 살아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다. 신라 지증왕때에는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였고, 고려시대에는 백성들이 조공을 바쳤으며, 여진족의 침탈로 한때 무인도가 되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조선 태종 때에도 치안관계로 그곳 주민들을 본토로 이주시켰는데 사람들이 살지 않자 울릉도의 천연자원을 탐낸 일본인들의 노략질이 심해져 정기 순찰제를 실시하기도 하였다한다.

그 후 조선말기에도 일본인들의 노략질이 더욱 심해져 조정에서는 개척령을 반포하여 1883년 처음 개척민 16가구 54명이 울릉도에 이주하므로써 새 역사가 시작된 것이었다. 이 섬은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해 있는 화산섬으로 강원도 익원리에서는 동쪽으로 약 137km정도밖에 떨어져있지 않고 면적은 72.5km², 둘레는 44.2km로 북위 37° 30' 에 위치하고 있다. 성인봉은 이 섬의 한 가운데에 있었고 약 2,600만년전부터 시작된 화산활동이 약1만년전에 중지되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갖춰진 것이라 한다.

북쪽의 해발 300m 부근에는 용암의 퇴적으로 형성된 알봉분지와 나리분지가 15만평정도 넓게 펼쳐져 있으며, 주봉에서 뻗은 5대 산릉은 바다에서 단애를 이루면서 기암절벽의 아름다운 해안선을 만들고 있었다. 수목들은 동백나무를 비롯하여 후박나무, 잠실나무 등 상록활엽수가 17종, 솔송나무를 비롯한 섬잣나무들의 침엽수가 8종 그리고 한지 식물인 주목나무, 향나무 등 모두 575종의 식물이 번식되어 있다고



울릉도의 도동항구

그곳 안내지에는 기록되어 있다. 또한 태하신당을 비롯한 구멍바위, 삼선암용굴, 촛대바위 등의 명소가 있고 너도밤나무와 동백꽃 그리고 호박엿에 담긴 사연들도 흥미를 끌고 있었다.

주민들은 대개 오징어잡이를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의 중심지는 도동이고, 저동은 동해의 최대 어업전진기지로 각광을 받고 있었으며, 섬어귀에서 모인 어선으로 늘 북적이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최고항구도시를 방불케 했다. 이 섬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하여 이른바 3무5다(三無五多)의 천연공원으로 글자 그대로 천혜의 섬이었다.

◎ 악전고투의 등반길

그것은 정말 악전고투의 등반길이었다. 산우회원들의 협조 없이는 올라갈 수 없는 정상이었고, 헌신적인 우정 없이는 내려올 수 없는 하산 길이었다. 우리 산우회원들이 나리동 너와의 집에서 등산을 시작한 것은 홍성에서 새벽 2시에 떠났어도 너무나 먼 길이기에 오후 1시가 다 되어서였다. 처음 시작되는 등산길은 등산객들이 너무 오르다보니 조잡한 오솔길은 아니었다. 잘 다듬어진 소로였

고, 확트인 곳도 있었다. 그러나 해발 300여미터의 나리령부근부터는 그렇지가 못했다. 급경사 길로 가파르기 시작하였고, 질척하고 자갈이 많아 어려운 고지를 탈환하려는 어느 병사처럼 숨가쁘게 기어오르지 아니하면 아니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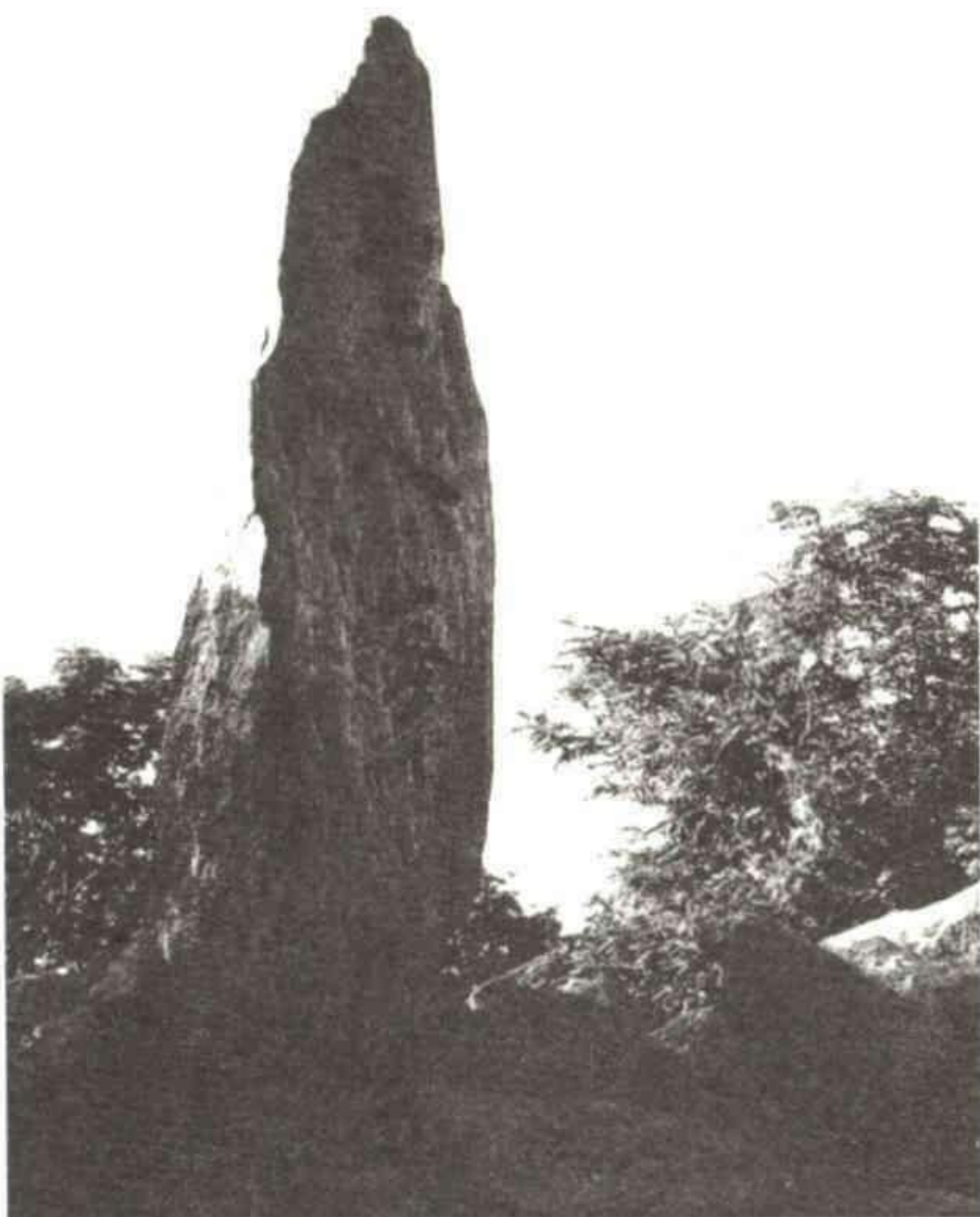
이렇게 험난한 곳에서도 조물주는 이 부근에 평원을 만들어놓고 있었다. 이 평원은 북쪽의 한 가운데에서 푸른 파도처럼 출렁이고 있었다. 분지는 화구(火口)언덕과 구릉으로 이어져 알봉분지와 함께 북으로 나있는 나리분지였다. 15만평이나 되는 넓은 평원으로 남북으로는 약2km, 동서로는 1.5km나 되었다. 이곳에서는 모두 16가구가 옥수숫대로 벽을 만들고 너와로 지붕을 만든 투막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리고 투막집 사람들은 명이나물을 비롯하여 당귀, 선호, 미역취, 꼬치미나물 등을 직접 재배하거나 산에서 뜯어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이중에 천궁이라는 약재는 원래는 산에서 크는 야생으로 자라는 땅속열매인데 이제는 산 아래 주민들까지 재배하여 수입을 톡톡히 보고 있었다.

이 평원이 울릉도에서 처음으로 인간들의 삶이 시작된 곳이라 하겠다. 이런 평원을 바라보며 우리 일행은 한 30여명이 외줄로 꼬리를 물고 길게 늘어서 올라가고 있었다. 말잔 등을 넘어서니 양 옆에는 수십 년 묵은 수목들이 뻗뻗이 들어서 길은 더욱 음산하고 안개마져 자욱이 깔린 구간으로 어느 무인도의 험난한 해변에 표류된 난민처럼 한없는 고독감에 젖어 들게 하고 있었다. 그때 뒤쪽에서 어느 회원이 “환자발생, 환자발생”하고 다급하고 처절하게 외쳐대고 있었다. 산행대장 민철주(이하 가명임)를 비롯하여 전임 산행대장 전규철 그리고 산행경력일 많은 정민국, 마범수, 장동섭 등 5명이 옆으로 비켜서서 환자를 기다리기로 하고 다른 일행들은 등산을 그대로 계속하였다.

환자는 엄인호 회원으로 아침에 포항식당에서 먹은 음식이 잘못되었던지 배에 통증을 일으키면서 설사를 계속하였다. 20발자국도 채 못가서 급한 대로 아무 곳이나 쭈그리고 앉아 설사를 쏟아내곤 하였다. 진퇴양난이었다. 뒤돌아 가자니 그때는 벌써 해발 700여 미터나 올라온 뒤였고 정상은 이제 200여 미터 남은 거리로 정상에 올랐다가 도둑으로 내려가는 것이 빠를 것 같았다. 급기야 민대장과 전대장이 양쪽에서 환자의 겨드랑이에 팔을 끼고 부추겨 떠밀어 오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환

자는 80kg정도 되는 거대한 체격으로 몇 발자국도 못가서 휘청거리며 주저앉곤 하였다.

그때마다 설사를 계속하였다. 휴지마저 떨어져 나뭇잎으로 대충 밑을 닦는 것 같았다. 옆에서 부축하는 사람의 얼굴이 일그러지지 않을 수 없었다. 환자역시 오만상을 찌푸리고 “아이구, 아이구”하는 신음소리가 대단하다. 일행 중 한사람이 휴대폰으로 다급하게 119를 불러대고 있었으나 산속이라 휴대폰이 잘 터지지 않았다. 그야말로 난처하기 그지없었다. 그래도 다섯명이 번갈아가며 떠밀어 악전고투 끝에 정상에 올라선 것은 환자 발생 후부터 2시간 남짓 지나 어느새 늦여름의 태양이 하늘을 가리고 서쪽에 기울어 나무그림자들을 길게 드리우고 있었을 때였다.



성인봉 정상바위

◎ 정상에서 바라보니 장엄하기만 한데

그래도 정상에서 보는 관망은 장엄하기만 하였다. 바위로 덮인 정상에는 '성인봉'이라는 표시가 바위에 힘 있게 색인 되어 서 있고 사방은 푸른 파도에 둘러싸여 크고 작은 바위들이 웅기종기 바다에 떠있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마치 커다란 불가사리의 잔등 같았다. 5각형의 별모양의 불가사리가 바위로 된 꺾데기를 둘러쓰고 5각의 뿌리를 바다 속에 깊이 박아 주둥이와 배를 담그고 모든 양분을 바다 속에서 빨아먹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성인봉을 중심으로 다섯 갈래의 지렁이 뻗어가고 있었다.

북으로는 967.8봉을 거쳐 끝머리에 두루봉(290m)을 만들고 공암을 바다에 빠뜨리고 있었다. 남으로는 통구미 두리봉(488.3m)을 거쳐 가두봉(104.3m)을 만들고 남동으로 관모봉(561.7m) 끝에 망향봉(317m)을 뻗쳐 도동부두 위에 서 있었다. 남서로는 태하령을 거쳐 끝에 대등(566.1m)과 투구봉 갈래를 만들었고, 북서로 초봉(608.2m) 거쳐 향목령(297m) 끝에는 바위로 된 대풍감의 갈래가 뻗어있었다.

이것들은 모두가 불가사리의 5개 발 같았다. 이 발들은 바다의 깊은 곳에 뿌리박고 동해바다의 험한 파도와 비바람에도 요지부동하고 장엄하게 버티고 있었다. 하천역시 길이가 긴 것이 다섯 갈래로 나누어지고 있었다. 저동천을 비롯하여 남양천, 남서천, 태하천 그리고 추산천이었다.

추산천의 물은 맑고도 풍성하였다. 지질학적으로 울릉도는 물이 많은 섬이다. 그래서 물과 미인, 돌 그리고 향나무와 바람이 많아 5다(多)라고 하지 아니하였는가. 그러나 하천은 바다를 넘어갈 수는 없었다. 성인봉에서 해안까지 흐를 뿐이었다. 다만 경사가 급하고 짧아 아름다운 폭포를 만들어 내고 있었을 뿐이었다.

저동천의 봉래폭포와 태하천의 북호폭포가 그것이었다. 추산천 끝에는 수력발전소가 있었다. 이 섬의 많은 물은 울릉도에 활력을 주는 근원으로 정상에서 바라보는 울릉도는 저 푸른 바다에서 파란 하늘을 향하여 도약하며 비상하는 듯 했다.

◎ 구원의 하산 길

발 빠른 회원 한사람이 앞쪽 회원에게 환자발생사실을 연락하여 마라톤식 전달은 급기야 119에 전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는 성인봉에도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산속의 밤은 깜깜 절벽으로 빨리다가 왔다. 험준한 산길은 한발자국마다 고통과 각고의 자국이었다. 환자를 부둥켜안 아도 보고, 업어도 보고, 걸어보는 자국마다 몸서리가 처졌다. 연락을 받았다는 119마저 소식이 없었다. 연락을 받았어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을 것이다. 어둠밤중 헬리콥터를 동원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험한 산길 분간할 수 없는 고지를 어떻게 날라 올 수 있으랴!

지친다리 부여잡고 한발 한발 더듬거리며 봉래폭포를 넘어섰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손전등을 든 119구조대원들이 몇 명 올라오고 있었다. 세상에 이보다 더 반가움이 어데 있으랴! 6.25때 헤어진 이산가족을 만나는 것보다 더 반가웠다. 구조대원들과 번갈아가며 환자를 떠밀어 도동에 거의 도착할 무렵 바다에는 수십 척의 오징어잡이 배들이 휘황찬란한 불빛을 명멸하며 반짝이고 있었다. 우리들의 무사히 하산을 축원하듯 500축짜리 등을 한배에 30여개씩 달고 수천키로와트의 불빛을 이용하여 오징어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가까이 내려올수록 그 불빛은 바닷물에 반사되어 호화스럽게

성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성좌의 아름다움보다 환자의 응급치료가 더 급했다. 먼저 도착했던 회원들은 우리가 무사히 도착하자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몰라 손뼉을 쳤다. 지정된 숙소에 환자를 눕히고 소화제와 지사정을 먹이고 응급치료를 하여 편안히 쉬게 하였다. 이렇게 험준한 산행 중에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다행스럽게 등반을 마친 것은 오직 조양산우회원들의 희생적인 협동정신이었고, 살을 깎아 내는 듯한 우정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는 산행이었으리라.

그날 밤 우리 모두는 안도감에 젖어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었다.

◎ 신비스러운 예술의 섬

도동에서 아침 일찍이 식사를 마치고 유람선을 이용하여 섬주위를 일주하였다. 섬 주위를 온통 둘러싼 갖가지 기암괴석은 볼수록 신비스러웠다. 독도를 비롯한



코를 물속에 박고 있는 커다란 코끼리상

관음도와 죽도가 청청바다에 떠있고 삼선암, 공암, 죽암, 북저암 등 30여개의 바위 암들이 늘어서 있었다. 전체적인 지형은 험준하고 날카로운 편이었다. 섬가운데 우뚝 솟은 성인봉에서 북쪽으로 흘러내린 자락에 형성된 나리분지와 알봉분지를 빼고는 평지가 적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사 8도이하의 땅이 전체 면적의 4%에 불과하다하니 이곳은 농사와는 거리가 먼 섬이었다.

해안을 에워싸고 있는 절벽과 바다 곳곳에 떠 있는 바위섬은 섬 일주 해상관광객들에게 독특한 감동을 주고 있었다. 해상에는 태하자연동굴 말고도 기묘하고 재미있게 생긴 바위가 많았다. 고기잡



우거진 원시림속 폭포

이 나간 아버지를 기다리던 딸이 굳어 버려 망부석(望夫石)이 되었다는 쫓대바위를 비롯하여 물속에 코를 박고 있는 커다란 코끼리 닮은 공암, 먹을 감고 놀다가 아름다운 경관에 마음을 빼앗겨 하늘로 올라갈 시간을 놓쳐버린 세 선녀가 변한 것이라는 삼선암 등 흥미로운 전설을 간직하고 있는 바위들도 있었다. 그 외에는 거북바위, 사자암 투구봉, 관음쌍굴 등 기암괴석들이 관광객들을 경외롭게 하고 있었다.

유람선을 타고 3시간에 걸쳐 우리는 우선 울릉도의 관문인 도동을 출발하여 저동-죽도-관음도-천부-추산-현포-태하-남양-통구미-사동을 거쳐 다시 도동으로 되돌아 나왔다. 해상 관광 말고도 섬에는 관광할 곳이 너무 많았다. 군데군데 자연적으로 넘쳐흐르는 용출수는 20여개가 넘게 하천을 만들고 있었다.

이제 울릉도가 절해의 고도로써 동해바다의 희미한 안개속에 뱃고동 소리만
쳐량하게 울린다는 섬은 아니었다. 또한 수만리의 아득한 동해를 바라보며
섬 아가씨가 님을 그리다가 동백꽃이 되었다는 전설속의 섬도 아니었다

5다(多)중의 하나인 울릉도의 물은 바닷물이 아닌 이 같은 맑은 단물로 그 맛이 좋고, 매끄러우며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동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도동약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칠맛으로 수많은 단물 중에서도 으뜸이란다. 철분과 칼슘, 마그네슘과 염소타산이온이 주성분이라는 이 물은 '토류탄산철천(土類炭酸銑泉)'이라고 불려지고 있었다. 물을 마시고 저동을 넘어 주사골을 거쳐 봉래폭포로 이어지는 6km거리의 육로는 울릉도에서 자랑할 수 있는 관광코스중의 하나였다. 주사골에는 지는 듯한 폭염에도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찬바람이 불어오는 천연에어컨이 있었다. 그곳에서 500m가량 올라가면 아름다운 봉래폭포가 그 웅장하면서도 장엄한 자태를 자랑하고 있었다. 이 폭포는 우거진 원시림 속에서 3단계 나누어져 떨어지고 있었는데 수량이 많아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사를 연발하게 하고 있었다.

◎ 성숙의 세월

이제 울릉도가 절해의 고도로써 동해바다의 희미한 안개속에 뱃고동 소리만 쳐량하게 울린다는 섬은 아니었다. 또한 수만리의 아득한 동해를 바라보며 섬 아가씨가 님을 그리다가 동백꽃이 되었다는 전설속의 섬도 아니었다. 너무 신비스러워 오랜 세월 쇠국주의를 고수하며 변방에 진영을 설치하여 외국과의 왕래를 두절하였고 해안지대를 황폐하게 보이게 하여 이 섬을 지켜왔다는 내력을 이제는 감수할 수 있었다. 정말 울릉도는 동해의 보물섬이었다.

섬으로부터 멀리 떠나올수록 동해바다의 온갖 잡동사니들을 잡아먹는 불가사리 같기도 하였으며, 곰모양에 무소의 눈과 코끼리의 코와 소의 꼬리 그리고 호랑이의 다리 같기도 하여 믿음직스러우면서도 당할 수 없는 어떤 힘을 가진 동물 같았다. 이 동물은 그 많은 동해의 물을 먹으며 동쪽의 큰 대륙에서 몰려오는 압력을 물리치고 요사스러운 기운을 쫓아버리는 우리나라의 수호신 같기도 하였다. 이 거대함을 떠나오는 조양산우회 역시 태어난 지 이제 다섯 살밖에 아니 되는 초동이지만 어른처럼 협동을 실천할 수 있었고, 살신(殺身)할 수 있는 우정을 발휘하여 동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성인(聖人)이었다.

이제 성숙의 세월은 조양산우회를 울릉도처럼 눈부시게 발전시키리라.

영원히... 저 든든하면서도 신뢰스러웠던 울릉도 성인봉에서의 협동과 동료애 정신이 사라지지 않는 한...

주부가 정말 알아야 할

환경 상식 스물한 가지 ⑦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환경상식 백가지(구자건 지음, 현암사)" 에서 자료를 발췌한 것임을 알려드리며, 이 글을 통해 환경상식에 대해 배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패스트푸드점이 쏟아내는 일회용품

일회용품은 편리하고 위생적이다. 그러나 엄청난 양의 자원을 낭비하고 쓰레기를 배출한다. 예를 들어 일회용 종이컵으로 하루에 커피를 '한 잔'만 마시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 사람이 한해에 쓰고 버리는 종이컵은 365개이다. 종이컵을 포개어 쌓는다면 아마도 자신의 키 정도 높이는 되지 않을까?

다만 우리는 이 종이컵이 쓰레기통에 버려져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 양을 가늠하지 못할 뿐이다.

우리 국민들이 한 해 동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은 금액으로 따져 무려 8,000억원 이상이다. 서울시 한 해 예산의 7분의 1 가량이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품값으로 사라져 버린 셈이다.

최근 들어 대형 백화점과 목욕탕 등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이 규제되고,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고 있어 일회용품 사용이 외견상 잠시 주춤하고 있다.

그러나 편리하고 위생적이며 값싼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취향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사용량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 일회용품 사용량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연평균 20~30%정도 증가한다면 몇 년 내에 1조 원은 쉽게 넘으리라는 예상이다.

일회용품 쓰레기가 전체 쓰레기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5%이다. 이 중에서 5%만이 재활용될 뿐이다. 일회용품으로 인한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일반 시민이 쓰레기 급증의 원인으로 첫 번째 꼽은 것은 일회용품의 증가였다. 상품의 과잉 포장 역시 대부분 한 번 뜯고 버리는 일회성 재지로 이루어진 것을 고려한다면, 일회용품은 쓰레기 발생량 급증의 주범이라 할 만하다. 이처럼 일회용품이 크게 느는 데 기여하고 있는 곳이 바로 패스트푸드점이다. 최근 들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신속 조리 음식점 즉,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해 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시설물과 사람, 그리고 음식 내용물을 제외하고는 전부 일회용품일 정도로 일회용품이 범람하고 있다. “저렇게 쓰고 버려도 되는 것일까? 물자 절약이 몸에 밴 중노년 세대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 성 싶다.

표 1. 시민이 생각하는 쓰레기 급증의 원인(복수 응답)

사용후 버리는 일회용품이 늘었기 때문	66.9%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 등 식생활 관련 쓰레기가 많기 때문	50.9%
폐지, 병, 고철 등의 회수, 재생이 잘 안되기 때문	39.5%
상품 등의 과잉 포장 때문	29.7%
종이류의 사용이 늘었기 때문	10.5%

자료 : 한국자원재생공사, 1994.

실제로 서울YMCA 사회문제부가 1992년 10월에 패스트푸드점 8개 업체(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아메리카나, 웬디스, 조아저씨햄버거, 하디스, KFC)를 대상으로 포장 용기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8개 업체 모두 많은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었다. 조사 품목은 햄버거, 파이, 후렌치후라이, 치킨, 콜라, 주스, 커피, 아이스크림, 샐러드 등 9가지였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품은 햄버거나 파이를 쌀 때 사용하는 코팅된 종이, 음료수나 아이스크림을 담는 컵, 스푼 등 매우 다양하다. 컵이나 쟁반으로 많이 사용되는 플라스틱이 잘 분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리고 무게에 비해 부피가 크기 때문에 쓰레기 양을 늘리고 매립지난을 가중시킨다는 사실 역시 잘 알려져 있다.

플라스틱 사용량은 해마다 증가해 1985년 1인당 소비량이 28.6kg이었던 것이 불과 5년 후인 1990년에는 64.8kg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3분의 1 이상이 포장용으로 사용되었다.

햄버거나 파이를 포장할 때 사용하는 코팅된 종이 역시 분해가 잘 되지 않고 재활용이 어렵다. 포장재로 사용되고 있는 코팅된 종이는 방수 기능과 인쇄를 좋게 하기 위해 플라스틱 재료를 코팅하였거나 라미네이팅한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이를 압축시켜 만든 컵을 사용하고 있다.

가볍고 보온 효과가 좋아 햄버거 포장에 많이 사용되는 스티로폼 역시 잘 분해되지 않고 쓰레기 양을 많이 만든다. 그리고 스티로폼은 제조 과정에서 오존층 파괴 물질인 염화불화탄소가 사용된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1991년 하반기부터 패스트푸드점에서 스티로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바 있다. 또 스티로폼은 플라스틱과 마찬가지로 태울 때 유해 가스를 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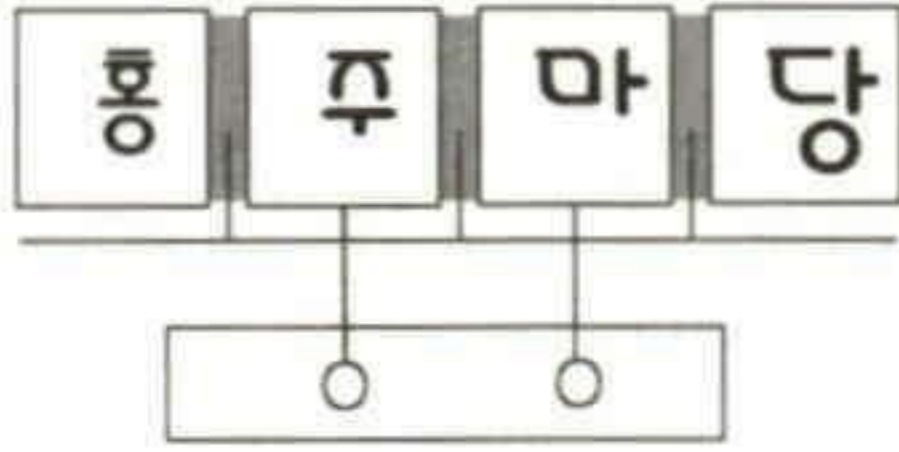
현재 일회용 컵에 대해서는 폐기물 부담금 제도에 의해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사용량을 줄이는 효과는 거두고 있지 못하다. 편리하고 청결한 생활 방식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취향도 고려해야겠지만 패스트푸드점이 쏟아 내는 쓰레기를 이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지 않을까?

표 2.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품 사용 실태

업체명 품목	롯데리아	맥도널드	버거킹	아메리카나	웬디스	조아저씨 햄버거	하디스	K F C
햄버거	스티로폼	스티로폼	코팅된 종이	스티로폼	은박지	코팅된 종이	스티로폼	코팅된 은박지
파이	코팅된 종이	코팅된 종이	코팅된 종이	-	스티로폼	-	코팅된 종이	코팅된 종이
후렌치 후라이	코팅된 종이	코팅된 종이	코팅된 종이	코팅된 종이	코팅된 종이	스티로폼	코팅된 종이	코팅된 종이
치킨	코팅된 종이	-	-	냅킨	스티로폼	-	코팅된 종이	코팅된 종이
콜라	코팅된 종이컵	코팅된 종이컵	코팅된 종이컵	코팅된 종이컵	코팅된 종이컵	코팅된 종이컵	코팅된 종이컵	코팅된 종이컵
주스	코팅된 종이컵	코팅된 종이컵	플라스틱컵	코팅된 종이컵	코팅된 종이컵	코팅된 종이컵	플라스틱컵	코팅된 종이컵
커피	코팅된 종이컵	-	스티로폼컵	코팅된 종이컵	스티로폼컵	코팅된 종이컵	스티로폼컵	-
아이스크림	플라스틱	플라스틱	플라스틱	코팅된 종이	플라스틱	코팅된 종이	플라스틱	코팅된 종이
샐러드	플라스틱	-	-	플라스틱	스티로폼	-	플라스틱	플라스틱

자료 : 서울YWCA, 1992.

현재 일회용 컵에 대해서는 폐기물 부담금 제도에 의해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사용량을 줄이는 효과는 거두고 있지 못하다. 편리하고 청결한 생활 방식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취향도 고려해야겠지만 패스트푸드점이 쏟아 내는 쓰레기를 이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지 않을까?



어머니

유재민 출향인

실타래 양손에 걸고
벌서듯 마주 앉아 뵈던 모습

가름마 곱게 타시고
거울 앞에 앉아 은비녀 꽃으시던 모습

다듬이질 곱게 두드린 이불잇
골무 낀 손끝으로 새 이불 기우시던 모습

화롯가 밤 묻어놓고
뽕얀 저고리 깃 인두질 하시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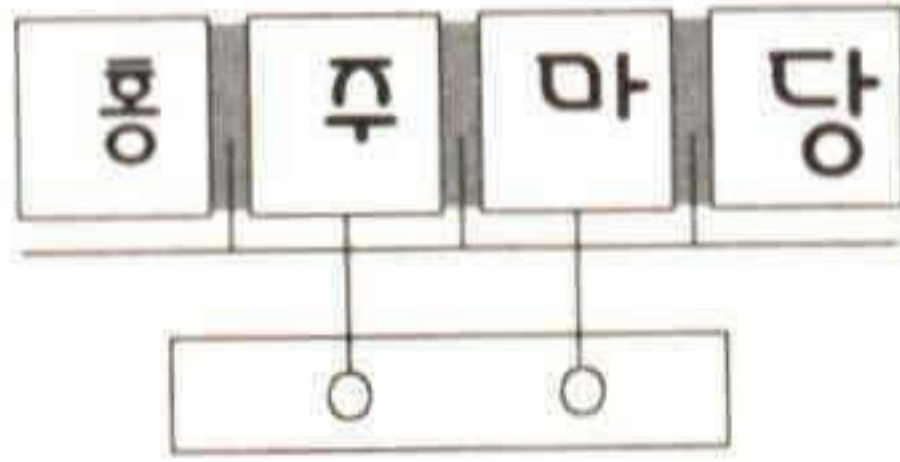
새벽녘 홀로 무릎 꿇고
가족위해 차례차례 기도하시던 음성

내 아버지께 온갖 정성 다해
하늘같이 모시던 어머니

지금 내 손은 당신 두 분께서 누워계신
금잔디 자리를 다듬고 있는데

하늘에 천둥소리 들리고
물방울 떨어지고 있습니다.

* 물방울 : 눈물과 빗방울



한시(漢詩)



又松 이해현 홍동농협조합장

“登 烏棲山 見 葦花平原” (등 오서산 견위화평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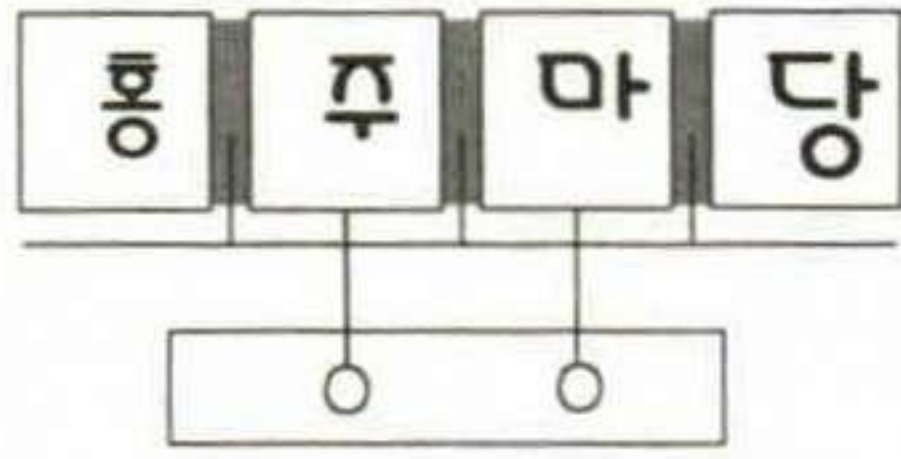
登嶺烏棲	葦海沈	(등령오서 위해침)
眼前風致	已秋深	(안전풍치 이추심)
人生行路	空何急	(인생행로 공하급)
玉貌一朝	老葉陰	(옥모일조 노엽음)

“오서산에 올라 억새평원에 서서”
 오서산 산마루의 억새바다에 빠지니
 눈앞의 풍광은 이미 깊은 가을이네.
 우리는 인생길을 어찌그리 조금히 사는지
 옥같이 고운얼굴도 하루아침에
 억새잎처럼 늙어지는 것을

“感朴子興組合長宅 菊展” (감박자흥조합장택 국전)

昔日陶翁	愛色妍	(석일도옹 애색연)
後人臨展	醉香先	(후인임전 취향선)
芳叢處處	芬勲隱	(방총처처 분근은)
菊園主客	願無仙	(국원주객 원무선)

“박자흥 조합장택의 국화전시회를 감상하며”
 옛날에 도연명은 고운색깔을 사랑했으나
 오늘날은 이곳에서 향기에 먼저 취했네
 곳곳에 만꽃송이 향기또한 은근한데
 여기 국화동산엔 주인이나 손이나
 신선이 부럽지 않다네



그리운 어머니



김정명 광천고등학교 교사

안경이 도수 높아 무거워
콧마루가 별정계 해졌네!
고생 곤하게 오래된 body powder를
툭툭 털어 손바닥에 쏟아
거울을 들여다보며
분칠을 했지!

얼굴에 잔주름이 금방 퍼지진 않잖아?
손가락으로 이리저리 문질러 보더니
스룩스룩 딱지를 잡아떼네!
조그만 구멍에서 피가 묻어나지!
그리고 또 거울을 보며
분칠을 하네!

어머니는 분칠을 점점 못하시지!
그 고왔던 얼굴은 어디로 가셨나?
칠흑같이 어두운 밤 고요한 달빛만이 외롭고
소쩍새 우는 소리 가슴에 파고드는데...
어머니! 너무 그리워...
오늘은 왜 이리 깊은 잠을 이룰 수 없나요!

불우이웃돕기 및 장학금 마련을 위한 제6회 학교4-H회 국화전시 개최

홍성군 4-H회연합회에서 주관하고 홍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후원한 이 행사는 주위에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개최되었다.

2004년 10월 25일(월)부터 10월 27일(수)까지 3일간 홍성복개주차장 국회전시장에 국화를 전시하였다. 전시회에는 홍성군 4-H지도교사 협의회와 소속 학교4-H회가 참가하였다. 출품작에는 입국작, 현애작, 분재작, 다룬대작 등이 있고, 출품점수는 500점이다.

국화는 예부터 사군자의 하나로 고결하고 품위 있는 자태와 특유의 향기로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아 온 친숙한 꽃이다. 세계적으로 1000여종의 개량종이 있으며 대·중·소국으로 분류하며 재배 형태별로 입국, 벼랑에 매달려 있는 듯이 늘어지는 현애국, 일정한 모양의 틀에 맞춰 키운 다룬대작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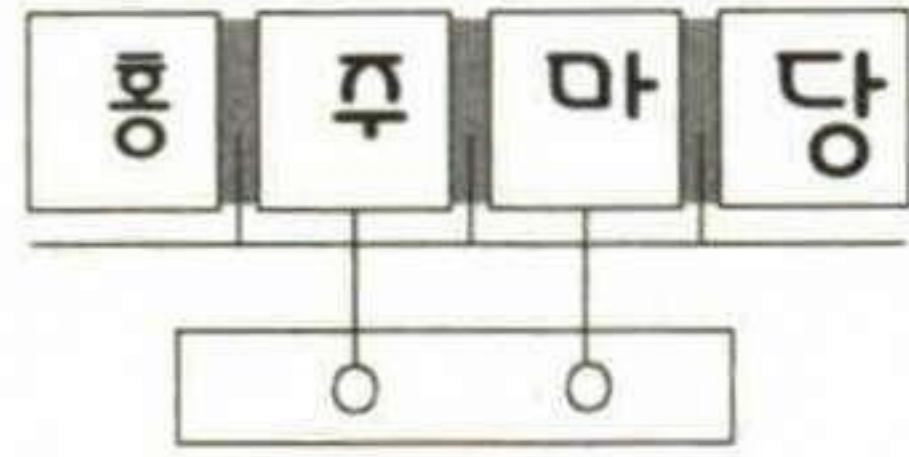
국화들이 화사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현애작은 동양적 자연미를 느낄 수 있는 재배법으로 소국(꽃지름 9cm이하)을 이용한다. 꽃의 색채와 개화상태가 일정하고 주지가 곧게 뻗어 유인상태가 일정한 각을 유지하면 길고 클수록 좋은 작품이다.

입국은 지주를 세워 국화를 키우는 방법으로 화분에서 꽃가지의 생육정도가 45cm이상이어야 한다. 꽃의 크기에 따라 대국(꽃지름 18cm이상)과 중국(꽃지름 9~18cm)으로 나뉘며 꽃대를 10송이 이하의 홀수로 세우는 것이 기본이지만 전체적 조화만 유지된다면 그 이상도 무방하다.

다룬대작은 대국을 50~60송이부터 100송이 이상까지 착화시키는 재배법으로 일반 관람자들에게 매우 환영을 받는다.

홍성군 학교4-H회는 매년 11월 초에 국화 전시를 하고 있으며, 1989년 갈산중학교4-H회를 조직, 2004년 현재 홍성고 외 22개회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앞으로도 꾸준한 노력으로 불우이웃돕기 및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국화전시회를 이어가길 바란다.



나는 사직도...



김영기 홍성정우산악회장

매월 고정된 연금 150만원 정도가 통장에 입금이 된다. 일정한 금액이 자동이체로 지출되고,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경조사비, 생활비 등을 공제하고 나면 여유자금이 없을 것으로 아는데 잔액이 소수점 2개가 찍혀 있는 것을 보면 나는 갑자기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아내의 검소한 생활이 절약으로 습관화되어 작은 액수의 잔액이 점차적으로 누적되어서 거금이 된 것이 대견하고, 작은 얻음으로도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마음가짐 때문에 행복감을 알게 되어 항상 풍요롭기만 하다.

지나간 60년대 내가 살던 고향에서 추석 다음날 밤에 면민 노래자랑 콩클대회가 있었다. 그때에 출연한 단발머리 소녀가 친구의 동생이란 이유로 후한 점수를 받아 입상을 한 것이 인연이 되었고, 그 후 나의 아내가 되었다.

방황 끼가 많은 내가 대책 없이 빈둥대고 있을 때 우리는 우연한 만남으로 결혼과 동시에 일정한 장소에 안주하게 되었고, 그 당시 경쟁률이 높은 공무원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경찰관이 되었다. 나는 내 직업을 다시없는 천직으로 알고 직무에만 충실히 근무하여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하게 되었다.

지금 와서 고백하지만 나는 이재(理財)에는

밝지 못하여 남들이 다 잘 챙기는 공돈은 구경도 못하였고, 요즈음 말로 잘 뜨는 사람도 못되어 남들이 탐내는 요직에는 얼씬도 못하였다. 변두리 한직에서만 맴돌다 보니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자존심만 강해져 분수에 넘치는 것이나 정당하지 못한 그 어떤 것도 넘어 보지 않고 우직하게만 근무를 하였기에 단 한번도 징계에 회부되지 않았다.

마음을 비우고 근무한 덕택인지 자녀들 3남매는 야생화 같이 곱게 자라서 장학금으로 모두 대학을 마치고, 자기들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해서 내 주변 버팀목이 되어주니 노년기에 행운이 나한테 찾아온 것만 같다.

나는 퇴직당시 일시금이 유리하다, 연금이 유리하다 의견이 분분하여 한동안 갈등이 되었는데 순간의 선택이 일생을 좌우한다고 연금을 선택한 것이 우리 내외한테 생기가 도는 활력소가 될 줄이야...

정년퇴직을 앞두고 나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친척뻘 되는 사람을 찾아가서 퇴직 후 진로를 상의하였는데 자기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면 배당금을 주고, 홍보 이사직으로 추천해 별도로 직급 수당을 주겠다고 하여 한동안 망설임도 있었는데 평소에 소심한 나한테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이 생활철학으로 각인되

었기 때문에 조건이 좋은 그 자리를 거절하고
연금수급자를 선택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내린 판단이 일생일대에 가장 멋진 결정이었다.

퇴직과 동시에 앞서 공직에서 퇴직한 등산
동호인을 상대로 경우산악회를 조직하였다. 연
중 산행계획을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목요일을
정기(定期)산행일자로 하고, 처음에 10명으로
조직된 등산모임이 활성화 되어 6년이 지난 지
금은 정회원이 33명이 되었다.

한파가 몰려오는 겨울날 창 넓은 남창(南窓)
가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따사로운 햇볕을 받
으며 은은히 흘러오는 불멸의 팝송을 듣다보면
젊은 시절로 되돌아간 착각이 들 때가 있다. 그
런 생각이 들 때에 늙은 나무도 꽃피어나니 마
음은 늙지 않았다는 노목개화 필불노(老木開花
必不老)란 한시(漢詩)를 생각나게 한다. 위 한
시는 조선조때 생육신이었던 김시습이 6세때
중용 대학을 통달하여 신동이라고 소문이 나자

옛날에는 6세의 어린이도

노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요즈음 젊은이는

노인들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야속할 때가 있다

월회비를 2만원씩 각출, 산악회 운영비로 쓰
고 나머지 돈을 저축하여 연2회 부부동반으로
1박 2일 코스로 관광나들이로 부인들의 소외감
을 해소시키고, 가족들 간에 친밀한 교우감이
형성되자 매월 퇴직 경찰관 부인들이 만날 수
있는 모임을 매월 갖게 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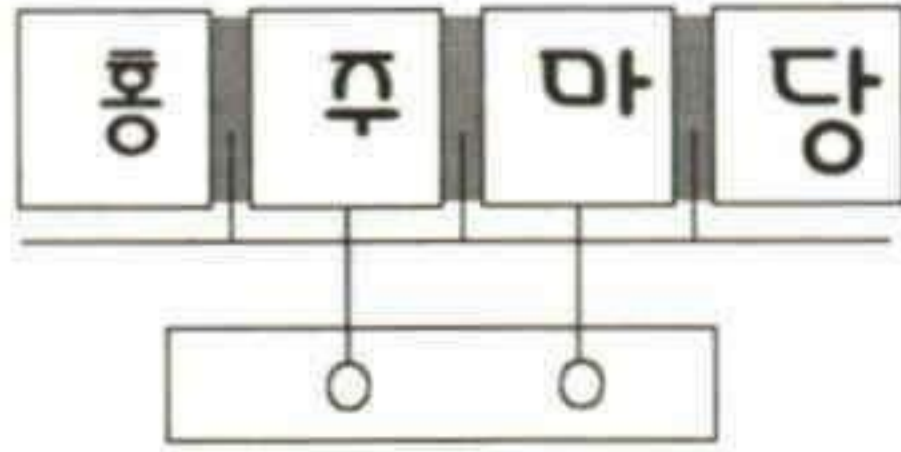
지난 연말에는 산악회 창립에 공로가 있다고
회원들이 나에게 격려금을 주며 칭찬을 하여
고맙기만 했다.

나는 한적한 산사를 찾아가서 요사채 온돌방
에 따뜻하게 장작불을 지피고 방바닥에 누워
서 앙상한 나뭇가지를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와 그윽이 들려오는 풍경소리에 얼핏 잠
이 들었다가 새벽녘 스님의 염불소리를 귀 기
울여 듣는 것도 나만이 즐길 수 있는 낭만이
기도 하다.

노정승이었던 허조(許稠)가 그를 불러서 노(老)
자(字)를 넣어 칠언절구(七言絕句)를 지어보라
하여 즉석에서 지은 작품이라고 한다. 옛날에는
6세의 어린이도 노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요즈음 젊은이는 노인들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야속할 때가 있다.

우리 내외는 공무원 연금수급으로 생계를 유
지하기 때문에 사회구성원을 보호하는 연금제
도가 무한히 고맙기만 하다. 연금을 받아서 기
쁘면 값음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과 기쁨도 배
(培)가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충북 음성군에
있는 꽃동네 회원으로 가입한 후 성금을 보낼
수 있는 것이 큰 보람이며, 우리 내외만이 살아
가는 즐거움중 하나이다.

그러기에 나는 아직도 삶의 끝자락에서 행
복한 노년기를 보낸다고 스스로 자랑을 하고
싶다.



오서산 석새풀축제

이환능 용봉산악회 고문

손끝을 갖다대면 쟁그랑하고 깨질 것 같이 투명한 하늘로 문을 연 시월의 셋째일요일. 설악을 색동옷으로 갈아입힌 단풍의 물결이 충남의 두 번째 고봉, 차령산맥이 서쪽으로 달려간 금북정맥의 최고봉 오서산에 막 다다라 심호흡할 즈음, 산악인의 자긍심을 가슴에 차곡차곡 채기며 두 번째로 맞이한 오서산 석새풀 등산 대회에 참가해 자연을 정화하러 길을 나선 용봉산악회 회원들.

짙은 주홍색의 잘 익은 감들이 내 마음에 남아있는 산에 대한 열정처럼 그 빛을 발하는 한가한 시골집 담장을 지나자 이른 시간인데도 주차장을 빼곡히 채운 차량과 사람의 물결. 간단한 기념식 후 “자연을 배우자, 지키자, 가꾸자”라는 어깨띠를 두른 우리 용봉산악회 회원들은 각자 손에 파란 쓰레기봉투를 들고 천천히 석새풀이 반겨줄 정상을 향해 첫발을 내디뎠다.

홍성에 뿌리를 내리며 이 오서산 오르기를 네 번째. 오늘 산행의 의미가 남달라서일까 그 어느 산행 때보다도 발걸음은 가볍고 콧노래는 저절로... 등산로 뿐 아니라 발아래 펼쳐진 누런 들판과 푸른 서해를 보며 내 고장 홍성의 아름다움에 취해도 보고... 아! 이래서 오서산을 서해의 등대산이라 불렀구나. 천수만 일대를 향해하는 배들에게 등대역할을 해주었을 오서산.

쓰레기를 주우며 오르기를 한 시간반 만에 다다른 정상. 그곳엔 가뭄으로 여느 때보다 키

가 작은 석새풀이 바람부는데로 수를 놓으며 내게 손짓을 한다. “어서오세요, 잘 오셨습니다.”하면서...

시원한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석새들이 펼치는 난무(亂舞)를 감상하며 잘 빗어진 동동주 한잔을 입속에 터니 “아! 여기가 바로 극락이구나.” 잠시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오서산 체취를 느끼며 허세를 부려본다.

그 얼굴, 얼굴들...

한바탕 웃어재킨 탕인가 갑자기 느껴지는 시장기. 각자가 여기저기 흩어진 비양심의 흔적들을 담으며 한창 기승을 부리는 햇살을 뒤로한 채 수백 년 된 느티나무로 뒤덮인 고려 때 대운대사가 창건한 정암사 법당에 들러 삼배를 올린 후 행사장에 도착하니 주최 측이 마련한 점심식사가 기다리고 있다. 잘 삶아진 돼지고기에 잘 익은 김치를 얹어 먹는 그 맛. 육천 명인가 팔천명분의 점심을 준비했다는 주최자측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배를 불릴 즈음 행사장 무대에선 초청가수의 노래가 흥을 더해준다.

주차장 및 도로마다 들어찬 각처에서 모여든 차량번호판을 보며 우쭐해지는 내 어깨엔 시월의 햇살이 내려앉으며 산악인으로서 자연을 가꾸며 사랑해야하는 이유를 속삭여준다. 산에는 행복과 즐거움이 있기에 내일 또다시 오르리라 마음먹으면서 축제의 마당을 뒤로한 채 내년 시월을 약속하며 아쉬움을 달래곤 하루를 접는다.

아름답고 풍성한 홍주의 학예회



우선희 홍주초등학교 교사

창문을 열면 살포시 다가오는 국화 향기, 아름답게 내려앉은 붉게 물든 단풍과 울긋불긋 수놓은 화려한 가을 산, 주렁주렁 매달린 풍성한 결실의 기쁨은 우리의 마음을 저절로 넉넉하게 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홍주에서는 어린이들의 '함께 펼치는 우리들의 꿈'이라는 주제로 정성스런 축제가 열렸습니다. 한 해 한 해 더해가는 학예회의 열기는 아홉 들을 맞는 이번 학예회에서도 빛을 발하였습니다.

학예회는 크게 작품 전시회와 예능발표회로 꾸며집니다. 작품전시회는 시화, 꾸미기, 풍경화, 경험화, 상상화, 조소, 판화, 서예, 학년별 작품 등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며 어린이뿐만 아니라 교직원과 학부모 작품까지 홍주교육가족 전체를 위한 축제의 전당입니다. 특히 이번 학예회에서는 학부모님들의 작품이 매우 많았습니다. 작품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부모님들의 정성에 보는 아이들도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강당 가득 풍성하게 전시된 수려한 작품들을 관람하는 아이들의 눈들이 계속 반짝였습니다.



아이들의 정성이 듬뿍 들어있는 작품들

기발한 아이디어의 모습, 소홀히 할 수 없었던 한 가닥 한 가닥의 선들, 느낌을 물씬 담은 글과 그림들, 작은 손길들이 모여 만들어낸 여러 작품들,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부모님의 정성어린 작품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감동이었습니다.

예능발표회는 모두의 눈을 더욱 긴장시켰습니다. 객석의 조명이 꺼지면서 무대의 불빛은 더욱 화려해지고 동화책에서 잠시 외출했을 듯한 1학년 공주님과



많은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서

왕자님의 첫인사로 축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어지는 화려한 무대들. 귀염둥이 유치원의 깜찍한 무용을 시작으로 하여 12개 종목의 공연은 보는 이의 마음을 온통 빼앗아 버리고 말았습

니다. 무려 95명이 수놓은 2학년 어린이들의 제창은 그 유명한 비인 소년합창단이 잠시 다녀갔다고 생각할만큼 아름다운 음색과 우아함에 모두들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화려한 부채 위에 나비처럼 꽃처럼 오색 꿈을 펼쳐보이던 언니들

의 부채춤, 마지막 세차게 일렁이던 파도에는 저절로 탄성이 나왔습니다. 나풀나풀한 파랑의상 속에 짙짙 뻗어나간 손끝 발끝에서 느껴진 절제된 아름다운 무용 댄스스포츠, 세상을 모두 집어

삼키고도 남을 듯한 웅장하고 격정적인 소리에 숨죽이며 들었던 사물놀이까지 다 소개하지는 못했지만 풍성한 예능발표회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문화와 감동에 흠뻑 빠져들었던 시간들. 지금 생각해도 이렇게 가슴이 떨릴만큼 그 설레임과 감동이 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화려한 학예회의 뒷면에는 안타까운 여러 마음들이 숨어 있습니다. 공연작품을 더욱 빛내줄 무대장치를 만들기 위해 또 좀 더 나은 강당 시설을 위해 노력하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의 안타까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이유로 다음을 기약해야 했습니다.

공연 내내 속썩였던 조명은 사진 속에서도 다시 한 번 안타까움으로 남았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을까? 얼굴에 그림자가 생기지는 않을까? 예쁜 얼굴, 귀여운 동작이 어그러져 보이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이곳저곳 조명을 옮겨보던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눈치채지 못하셨을 거예요.

한 작품이 무대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스며있는지 저는 제가 교사가 되면서 비로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저래 바쁜 아이

들을 데리고 짧은 시간 애태우며 지도하셨을 선생님의 마음과 미처 준비하지 못한 아이들을 위한 남모르게 흘렸던 선생님의 땀방울을 아마 많은 부모님들은 모르실 거예요. 좀 더 많은 아이들에게 화려한 빛이 비춰지게 하고 싶었던

선생님들의 넓은 마음도 아마 모르실 거예요.



화려한 부채춤을 펼치고 있는 아이들

공연이 끝나고 내려오면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얼싸안고 펄쩍펄쩍 뛰면서 울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연을 담고 있는 작

품이기에 작품 곳곳에 묻어있는 정성과 땀방울이 느껴져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이 젖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들이 어우러진 홍주초등학교의 깊은 전통 학예회는 홍주교육가족 모두가 같고 다듬어 만들어낸 빛나는 보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낌없는 사랑과 열정으로 지도해주신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든든한 버팀목처럼 칭찬과 격려로 힘을 불어넣어 주셨던 학부모님들, 그리고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다듬었던 홍주의 자랑스러운 어린이들. 이렇게 이번 학예회는 홍주교육가족 모두가 빛어낸 보석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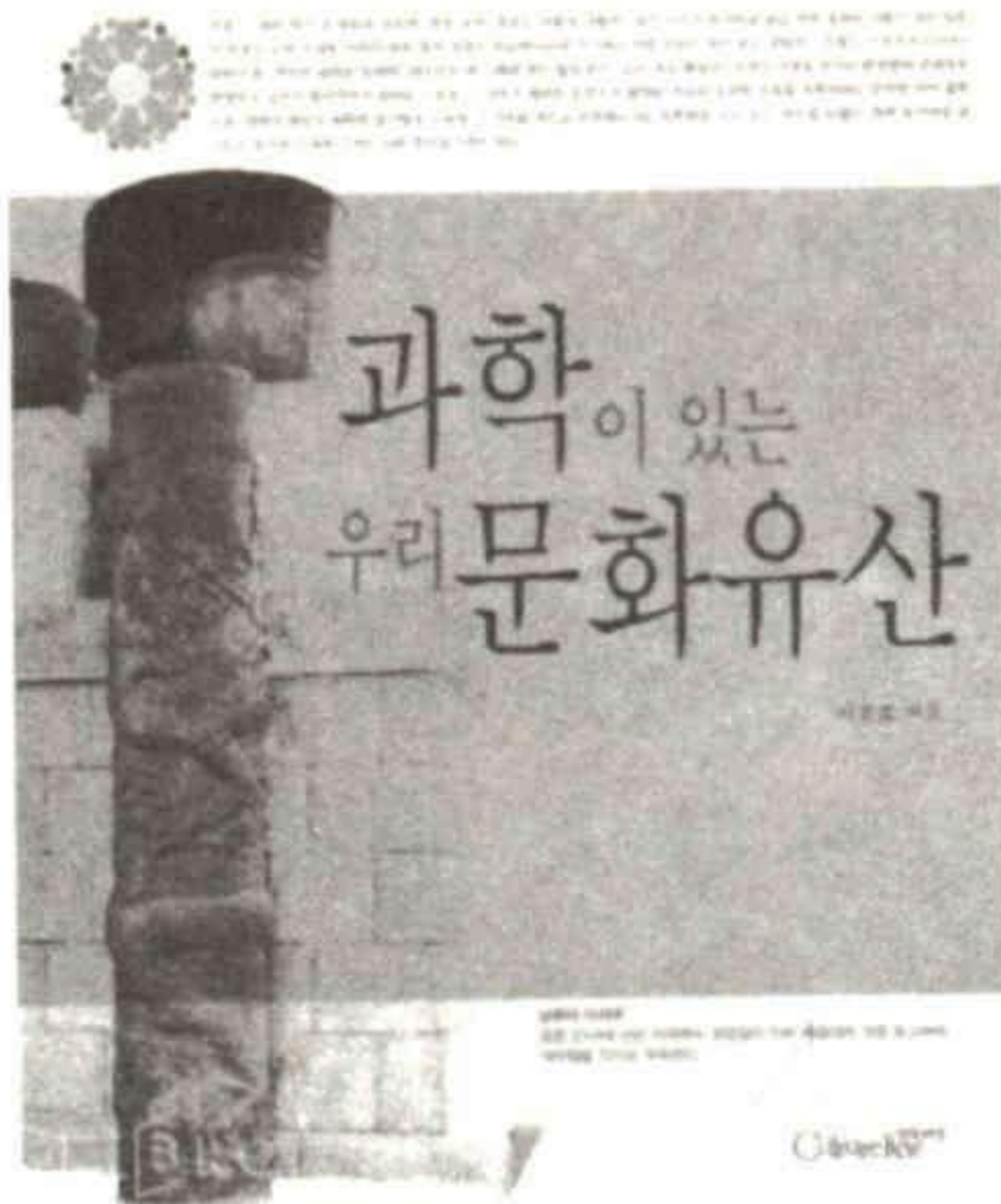
그렇게 짧은 이틀 동안의 학예회는 홍주의 전설이 되어 내년에 새 생명을 받아 더 빛나고 더 알찬 열 번째 생일을 맞는 학예회로 다시 태어날 그 때까지 많은 홍주가족의 마음에 여울져 남아 있을 것입니다.

내일의 꿈과 보람을 싣고 더 많은 어린이들의 축제로 다시 태어날 것을 기약하며 지속적인 격려와 후원을 바라는 마음과 함께 그 동안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신간안내

과학이 있는 우리 문화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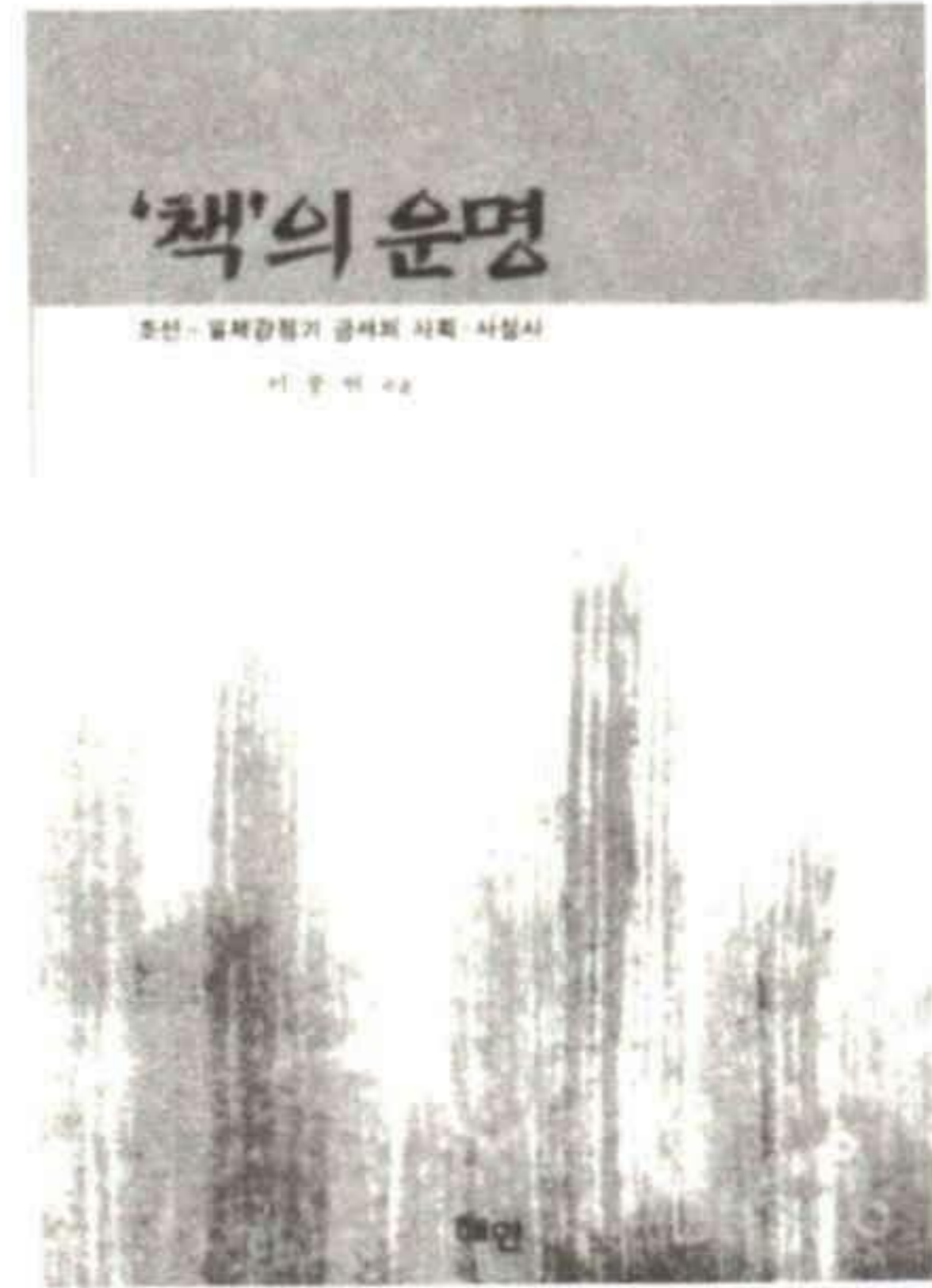
이종호 지음 / 컬처라인 펴냄



이 책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지만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그 가치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우리의 문화유산을 과학적으로 접근해 그 가치를 재조명하는 작업이다. 다루는 분야도 족보, 풍수지리, 조상제례, 판소리, 고려청자, 토종개 등 우리 문화의 전반에 걸쳐 다양하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법과, 또 우리 문화를 서구의 문화 현상과 연결시켜 분석하는 독특함을 방법으로 취함으로써 우리 문화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되살려내고 있다.

'책'의 운명

이중연 지음 / 혜안 펴냄



금서는 그 시대를 이해하는 하나의 수단일 수 있다. 조선 전/후기 사상과 금서 논쟁에서부터 대한제국, 일제 강압기의 금압정책과 출판 운동까지 금서의 역사를 자세히 서술하고 있는 이 책이 다루는 것은 단지 책 한 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의 지배 사상과 질서 유지와 연관된 사회 전반의 이야기이다. 따라서 이 책은 금서를 키워드로 하는 역사 읽기의 새로운 형태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편집부>



생활의 지혜

【가구에서 나는 냄새를 없애려면】

- ☞ 찻잎을 담긴 물에 걸레를 빨아 닦아내면 집안 가득 기름과 칠 냄새가 말끔히 가신다. 마른걸레로 뒷마무리를 하면 가구 수명도 오래간다.

【하수구 냄새는 이렇게】

- ☞ 굴껍질이나 오렌지껍질 등을 응달에 말린다. 마른 굴껍질을 주전자에 넣고 팔팔 끓인 후 냄새나는 하수구에 부으면 한 동안 냄새가 나지 않는다.

【대나무자리, 왕골돗자리 보관】

- ☞ 대나무를 이어 만든 대나무자리와 왕골로 만든 돗자리 등은 사용할 때보다 보관할 때가 더 중요하다. 잘못 보관하면 자리가 꺾이거나 곰팡이가 슬고 변색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물걸레를 꼭짜서 얼룩진 곳을 깨끗이 닦아낸 다음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충분히 말린다. 햇볕에 말리면 모양이 뒤틀리거나 변색될 우려가 있다. 잘 지워지지 않는 얼룩은 부드러운 솔에다 중성세제를 묻혀 살살 문지르면 깨끗이 지워진다.

【벽지를 오래 쓰려면】

- ☞ 벽지가 깨끗할 때 물계 쉰 풀과 아교 끓

인 것을 3대 2의 비율로 섞은 뒤 분무기에 넣어 벽과 천정 등에 골고루 뿌려 주면 벽지에 풀과 아교가 스며들어 색이 바라거나 때가 타는 것을 예방해주고 윤기도 감돌게 한다. 종이가 질겨져 식구들이 잘 기대는 벽의 벽지가 일어나 흉하게 되는 것도 방지한다. 이렇게 해두면 약3년 정도는 새로 한 벽지의 산뜻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빗에 낀 때 빼는 법】

- ☞ 머리빗이나 헤어브러시를 자주 세척해 주지 않으면 머릿기름이나 먼지 등으로 인해 찌든 때가 생기게 된다. 이런 때는 물에 샴푸를 풀어 거품을 일으킨 다음 그곳에 담가 두었다가 물로 헹구면 신기할 정도로 깨끗이 잘 빠진다.

【액세서리 빛나게 하는 방법】

- ☞ 식소다를 물에 적신 액세서리에 적당히 뿌린 후 손으로 문지르거나 물에 담갔다가 꺼낸다. 문지를 때 식소다 색깔이 까만색으로 바뀌는데 약30초에서 1분정도만 가볍게 문질러 준 뒤 물에 깨끗이 씻으면 광택이 난다.

홍성문화원 회원모집 안내

■ 회원모집 취지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저희 홍성문화원이 새롭게 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고장 홍성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저희 홍성문화원과 함께 하실 회원을 모집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회원혜택

- 문화원발행 정기간행물 배부
- 문화원개최 행사에 초청
- 문화원 보유자료 열람 및 대관

■ 회원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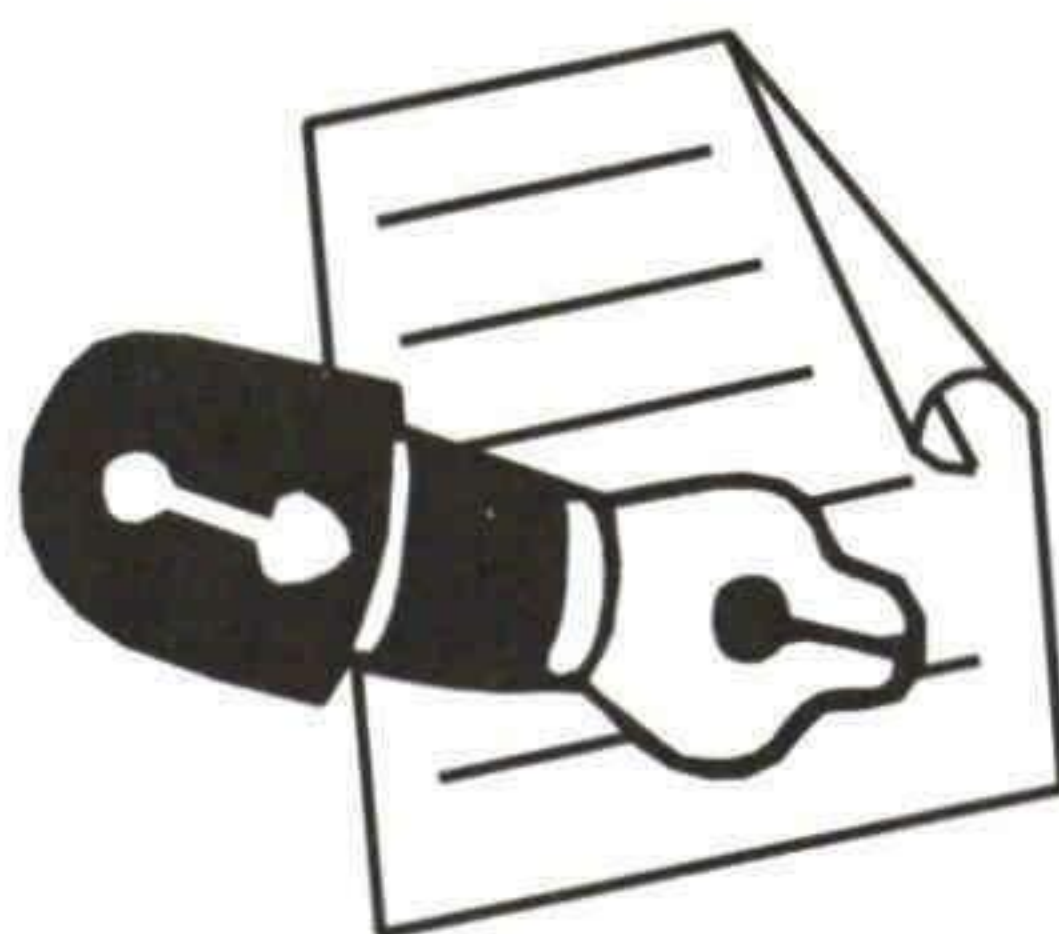
- 문화원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 1년회비 : 20,000원

■ 문의사항

- 주 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12-13 (우:350-807)
- 전 화 : (041) 632-3613, 634-9659
- FAX : (041) 633-1199

원 고 모 집

「홍성문화」에서는 독자여러분의 원고를 모집합니다.



- ☞ 각 사회단체, 기관 및 군민소식
- ☞ 고향에 대하여 쓰고 싶은 글
- ☞ 기타 시, 수필, 콩트
- ☞ 보내실 곳 : 우)350-807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12-13

홍성문화원 「홍성문화」 편집실

☎ (041) 632-3613

표지사진 작가

박 만 순



-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
- 홍성사진동우회 회원
- 사단법인 한국산악회 홍성산우회 회장
조선일보 월간 산 사진공모 최우수상 등
전국사진공모전 다수 입상
- 현 대명사 대표

편집 후기

붉게 물들었던 산에는 앙상한 나무들만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계절이 바뀔때마다 옷을 입고, 벗는 것을 반복하며 다시금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나무가 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나무에게 배울점이 많다.

인내심을 갖고 봄을 기다리는 나무들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가슴에 품은 희망을 이룰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표지사진 설명

▷ 표지사진 : 『홍주아문(洪州衙門)』

홍주아문은 조선왕조때 홍주목의 동헌인 안회당의 외삼문(外三門)으로서 고종 때인 1870년 홍주목사 한응필이 홍주성을 대대적으로 보수하며 이 성의 동문인 조양문의 문루를 설치할 때 같이 세운 것이다.

대원군이 사액(賜額)한 홍주아문의 글씨는 6.25전후해서 망실되었으며, 이 아문은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아문 중에서 가장 크고 특이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홍성문화

2004. 겨울

발행인 이 하 영

편집인 정 재 범

발행일 2004년 12월

발행처 홍성문화원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12-13

TEL.(041) 632-3613, 634-9659

1989. 11. 23 등록번호 충남바01100

인쇄처 조양인쇄사(TEL : 041-632-2363)

○  **홍성문화원문화강좌 프로그램에 참여할 회원을 모집합니다** ○



저희  **홍성문화원**은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홍성의 미래를 의식하며 더 밝은 홍성으로 가꾸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문화창출의 산실로 꾸려가려 합니다

코바늘·뜨개질교실, 노래교실, 테디베어교실, 도예교실

알찬 프로그램으로 전문강사들을 모시고 쾌적한 교육공간에서
 여러분의 문화생활을 돕고자 합니다

◀ **강좌 안내** ▶

구분 요일별	프로그램	시간	과정	내용	월회비
수, 금	코바늘·뜨개질교실 (1층)	오 전 10시~12시	년 중	코 바 늘 기 초 뜨 개 질 배 우 기	10,000원
수	노래교실 (2층)	오 후 2시~4시	년 중	가곡, 국내가요, 외국 가요 등 노래 배우기	15,000원
화, 목	테디베어교실 (1층)	오 전 10시~12시	년 중	테 디 베 어 기 초 배 우 기	25,000원
화, 목 수, 금 토, 일	도예교실 (공방)	오 전 10시~12시	년 중	기 초 부 터 배 우 기	30,000원

- **접 수** : 수시접수
 - **장 소** :  **홍성문화원**
 - **문 의 처** :  **홍성문화원** 사무국 (☎ 632-3613, 634-9659)
- ※ 개강일시는 강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냉이(나생이)

〈개화기 : 5-6월, 용도 : 어린 식물은 식용〉



들과 밭에 나는 월년초. 키 10-50cm. 전체에 털이 있고, 뿌리는 곧음.

근생엽은 밑생, 지면에 퍼지고, 깃 모양으로 갈라지며, 위끝의 갈래가 가장 큼.

경생엽은 호생, 피침형, 밑이 킷불 모양이며, 원줄기 반 정도를 감싸고, 가장자리가 깃모양으로 갈라지나, 위로 갈수록 큰 날카로운 이 모양으로 됨.

꽃은 흰색, 총상화서, +자 모양. 꽃받침 4장, 긴 타원형, 길이 1mm. 꽃잎은 도란형, 길이 2-2.5mm. 열매는 단각, 삼각형, 길이 6-7mm, 끝이 오목함. 염색체 수 $2n=16, 32$.

제 길을 제 스스로 가계 밝혀주는



HONGSEONG CULTURAL CENTER

홍성문화원

☎ (041) 632-3613, 634-9659